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문자 언어 표현방식 중심으로



쓰는 행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쓰기-예술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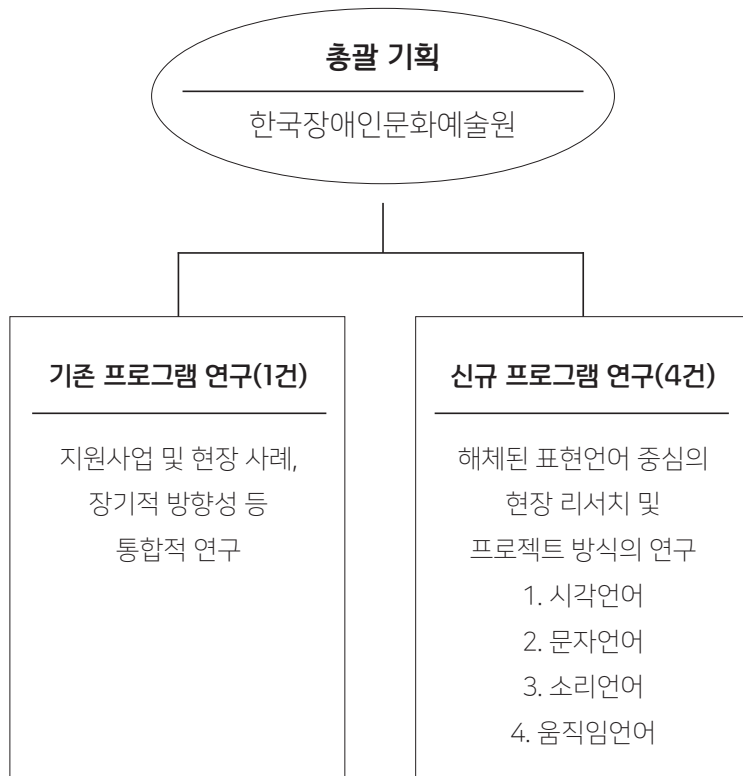
신규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 문자 언어 표현방식 중심으로

쓰는 행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쓰기-예술**



※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한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사업 및 현장 사례와 장기적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기존 프로그램 연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해체된 표현언어를 중심으로 현장 리서치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 '신규 프로그램 연구'이다. '신규 프로그램 연구'는 비장애인에게 익숙한 장르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표현 행위 자체로 드러나는 해체된 표현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4인의 예술가팀이 시각, 문자, 소리, 움직임이라는 네 개의 표현언어를 담당하여 더욱 현장 중심으로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그중 하나의 표현언어에 대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기획 배경 및 맥락은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_기존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I. 발달장애인의 문자언어를 편견 없이 바라보기	13
1. 이름 붙이기	
(1) '문자언어'를 '쓰는 행위'로	14
1) 비장애인 중심의 표현언어 갈래와 '문자언어'	
(2)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쓰는 행위'들	16
1) 문자로 추상적 표현과 이야기 만들기	
2) 문자 기호의 형태에 집중해 쓰기	
3) 쓰기의 움직임에 집중해 쓰기	
(3) 비장애인의 오해, 오독을 방지하기	18
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2) 문학예술의 확장 가능성 상상하기	
2. 프로그램의 지향	
(1) 치료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기	22
(2) 적소 구축하기	22
(3) 자기결정권 존중하기	23
(4) 예술 행위 공간에서 적소구축 돕기의 사례	24
1) 아뜰리에 코나스	
2) 대안적 장애인야학	

3. '쓰는 행위'에 관한 스펙트럼

(1) 스펙트럼 표기의 의미 28

- 1) 더 나은 조력을 위한 도구
- 2) 예술활동 잠재력 파악을 위한 도구

(2) 스펙트럼의 표기 방법 29

1) 세 가지 요소와 질문들

- ① 의도 (의미 표현)
- ② 표현 (형태 표현)
- ③ 행동 (움직임 표현)

2) 스펙트럼 표기의 예시

- ① A의 경우
- ② B의 경우
- ③ C의 경우
- ④ D의 경우



II.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 37

1. 협업 구조 만들기

(1) 일상 속 특이사항을 교차 기록해 연결망 만들기 38

(2) 조력자의 역할과 태도 확인하기 40

1) 도전행동도 관계 맺기의 하나

2) 조력자는 문제해결자가 아님을 알기

2. 프로그램의 구성

(1) 워밍업 44

1) 공동의 공간과 개별의 공간을 구분하기

2) 자신의 자리 찾도록 지원하기

3) '아무것도 하지 않음' 대면하기

(2) 글자블록 교구의 제안 45

1) 의도-표현-행동 사이 지점의 확장

2) 글자블록 교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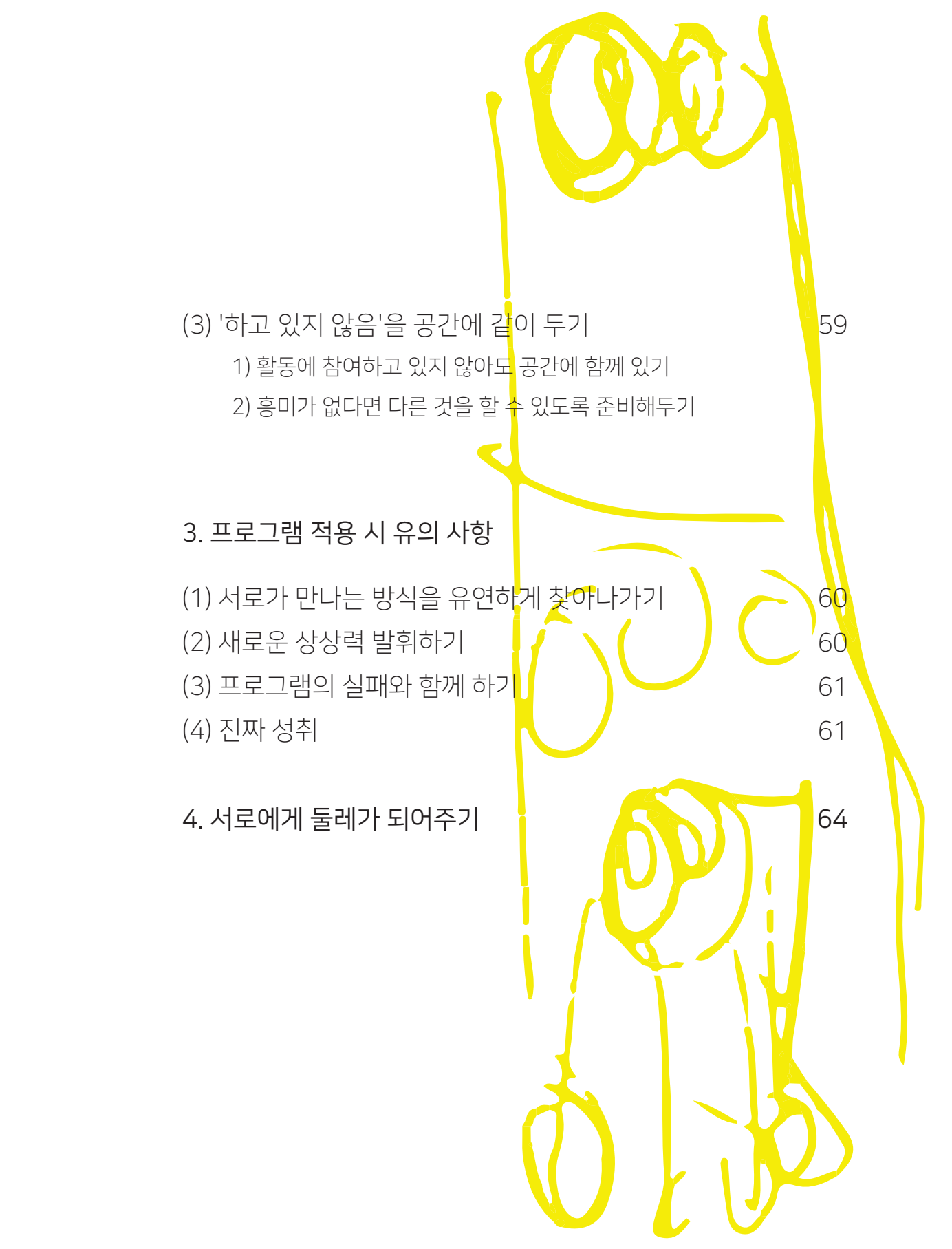
① 납작하고 질감이 살아 있는 평면 글자블록

② 각각 형태가 다른 칠판 재질의 입체 글자블록

3) 글자블록을 활용한 프로그램 안내

① 감각 활동 중심으로

② 관계 활동 중심으로

A large, abstract yellow scribble covers the right side of the page, resembling a stylized face or a series of overlapping loops and lines. It is positioned behind the text, partially obscuring it.

(3) '하고 있지 않음'을 공간에 같이 두기	59
1)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공간에 함께 있기	
2) 흥미가 없다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기	

3. 프로그램 적용 시 유의 사항

(1) 서로가 만나는 방식을 유연하게 찾아나가기	60
(2) 새로운 상상력 발휘하기	60
(3) 프로그램의 실패와 함께 하기	61
(4) 진짜 성취	61

4. 서로에게 돌레가 되어주기	64
------------------	----

Ⅲ.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사례 연구 인터뷰 67

1. A.

(1) 자기소개 70

(2) 당사자 인터뷰 71

(3) 조력자 인터뷰: 예술인의 조력 76

1) A의 양육자

2) A의 예술 활동 퍼실리테이터

2. B.

(1) 자기소개 83

(2) 당사자 인터뷰 84

(3) 조력자 인터뷰: 직업인으로서의 조력 88

1) B의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2) B의 양육자

3. C.

- | | |
|------------------------|----|
| (1) 자기소개 | 97 |
| (2) 당사자 인터뷰 | 97 |
| (3) 조력자 인터뷰: 탈시설 이후 자립 | 98 |
| 1) 장애인야학 활동가 | |
| 2)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 |
| 3)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조력자 | |

4. D.

- | | |
|------------------------|-----|
| (1) 자기소개 | 113 |
| (2) 당사자 인터뷰 | 113 |
| (3) 조력자 인터뷰: 탈시설 이후 자립 | 114 |
|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 |
| 2)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조력자 | |

1. 발달장애인의 문자언어를 편견 없이 바라보기

비장애인 중심적 위계, 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 이름 붙이기

(1) '문자언어'를 '쓰는 행위'로

장르 중심의 표현에서 행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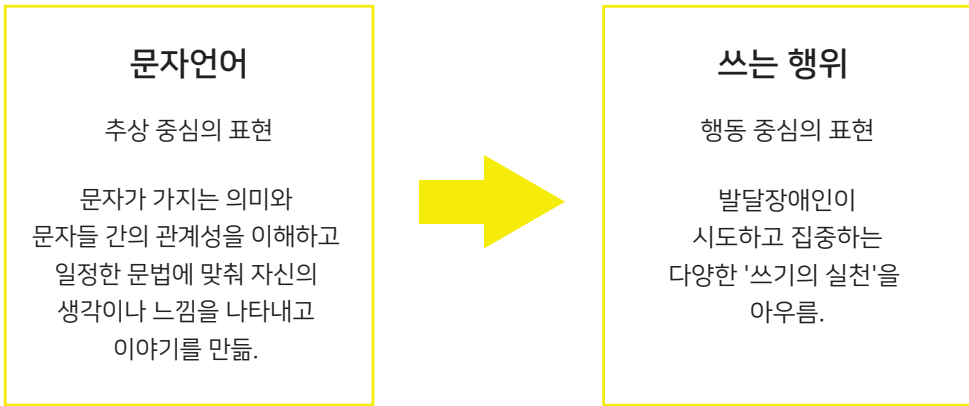
1) 비장애인 중심의 표현언어 갈래와 '문자언어'

사람은 사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으로 언어를 구사한다. 이를 감각의 종류에 따라 크게 '시각 언어', '문자 언어', '소리 언어', '움직임 언어'라는 네 가지 표현언어로 분류할 때, 이 책에서 다루려는 것은 '문자 언어'다.

'피플 퍼스트(people first)', 발달장애인의 권리선언처럼 사람을 먼저 놓고 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저 네 가지 공통된 표현 언어 안에서 삶을 통틀어 소통하고, 종종 오해하고, 가끔 좌절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을 말할 때,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적인 장르로 구분하고 그 가치 기준을 가져오려는 경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 시각, 문자, 소리, 움직임의 언어를 예술교육에서 미술, 문학, 음악, 무용 등 비장애인 중심의 예술 장르 안에서 접근하려 한다.

'문자 언어' 또한 그러한 경향을 피하기 힘들다. 미간을 찌푸린 채 안경을 쓴 작가가 책이 잔뜩 쌓여있는 공간에서 필기구를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거나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모습은 글을 쓰는 작가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문학에서의 문자언어는 사회적 약속인 기호체계로서 작동한다. 작가는 단어와 문장을 적절히 사용해 자신만의 감각을 표현하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비장애인 중심의 지적 활동 위주로 '문자 언어'라는 말이 쓰여 온 환경을 감안할 때 지적, 자폐 장애를 가진 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관점을 지녀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비장애인 장르 중심의 문학이란 좁은 가능성의 틀 안에 가두기보다, 발달장애인의 쓰기 표현을 중심에 두는 대안적 예술교육의 관점을 함께 가질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문자언어'라는 장르 중심의 명칭을 '쓰는 행위'라는 행동 중심의 명칭으로 바꿔 부르려고 한다.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놓을 때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시도하고 집중하는 '쓰는 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인간의 쓰는 행위가 지닌 다양한 가능성의 영역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쓰는 행위'들

발달장애인은 관습적인 '문학'의 장르가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채롭게 문자언어를 사용한다. 의도를 가진 문자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기도 하고, 약속된 문자 기호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도 하며, 쓰는 행위 자체를 반복해 안정감을 찾기도 한다. 또한 주변인의 쓰는 행위를 흉내 내기도 하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이 속한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쓰기의 실천이다. 즉, 발달장애인의 문자언어 사용은 흔히 이야기하는 문학예술로서의 문자언어 사용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는 기호를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기표의 이미지 그 자체로 미적 표현이 되기도 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움직임과 연결된 쓰기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는 공통적으로 '쓰는 행위' 그 자체를 기반으로 실행되고, 확장된다. 다음에서 우리는 '쓰는 행위'를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나누고자 한다.

1) 문자로 추상적 표현과 이야기 만들기

문자가 가진 의미와 문자들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일정한 문법 안에서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낸다. 자신의 흥미에 따른 세계를 묘사하거나 기존의 이야기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문학'이란 갈래 안에서 비장애인이 문자언어를 사용할 때 교육 받아온 용법과 같다.

2) 문자 기호의 형태에 집중해 쓰기

문자가 가진 의미보다 문자의 형태 그 자체에 집중해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글자 쓰기의 순서와 띄어쓰기의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이미지를 그려내듯 형태를 변형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반복해서 쓰면서 조형미를 더한다. 혹은 여러 이미지 사이에 문자를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문자가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표현한다.

3) 쓰기의 움직임에 집중해 쓰기

개개인이 활용 가능한 손의 근육과 집중 가능한 시간을 가지며, 반복적인 쓰기를 통한 안정감과 자신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한다.

'쓰는 행위'의 둘째와 셋째 표현 방식은 자칫 '낙서' 등으로 오인되기 쉽다. 비장애인 중심의 시선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행위로 평가절하되며,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는 예술교육 현장에서조차 하나의 존재, 행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쓰는 행위를 표현 방식으로 동등하게 보며 28쪽 3. '쓰는 행위'에 관한 스펙트럼에서 세 가지 기준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 비장애인의 오해, 오독을 방지하기

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기¹⁾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기결정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헌법10조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명시된 권리이다. 당연하게도 발달장애인에게도 존중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성인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장애를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지기도 하고, 효율적인 돌봄이라는 이유로 연령과 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에 처하거나 교육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가정 안에서 맞춤형 양육과 교육 환경을 가진 경우에도 일정한 선택지 안에서 결정권이 주어지며,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육자의 가치 기준 바깥을 여러 여건상 선택하거나 상상하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찾아오는 이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조력자인 경우가 많다.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을 직접 원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국한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조력자의 인권 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리가 부정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참여 시 발달장애인이 드러내는 행위 및 욕구를 온전히 파악해야 하며, 기존의 가치 기준대로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

[1].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333쪽

'8장 자기결정권, 나와 너 '사이'의 권리: 연립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기결정권' 참조.

그런데 조력자는 프로그램의 '이름'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 조력자가 아무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 노력하더라도, '문자언어'라는 막연하지만 여전히 장르 구분적인 이름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쓰는 행위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오해하거나 오독할 수 있다. 심지어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쓰는 행위'는 조력자의 관찰로 확장될 기회를 얻곤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조력자의 상상력이 제한당하여 발달장애인의 행위와 욕구를 읽어내기 어려워지는 순간, 그 가능성은 사라지고 쓰는 행위 자체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2) 문학예술의 확장 가능성 상상하기^{2 3}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 결과물은 다양하며, 그만큼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를 문학예술에 포함하고 더 나아가 언어의 잠재력을 확장시키는 역할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드넓은 문학예술 활동에는 유려하고 안정적인 글쓰기를 기반으로 항상 통용되고 이해되는 방식의 언어 표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언어 표현에 한계를 느끼는 작가들이 문학 실험을 진행해 왔다.

일례로, '잠재문학작업실'이라는 이름으로 문학에 제한된 규칙을 적용해 문학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킨 프랑스의 올리포(OuLiPo) 그룹이 있다. 이들은 문학 작품을 대할 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어찌면 일종의 강박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불러일으킬 새로운 감각, 결국 언어가 지

[2]. 광민석, "레이몽 크노 Queneau-올리포 OuLiPo 그룹과 프랑스 현대 시학", 『인문과학』, 109호, 2017, pp. 187~216 참조.

[3]. 남종신·손예원·정인교, 『잠재문학실험실』, 작업실유령, 2013 참조.

닌 새로운 잠재성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질문했다. 그래서 울리포는 글쓰기에 앞서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에 따라서 글의 형식과 구조를 변형했다. 이때의 규칙은 전통적인 문학적 규칙과 완전히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다. 울리포가 만든 최초의 규칙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사+7'이라는 방식은 원문이 될 한 편의 글을 선택한 후 글 안에 쓰인 모든 명사를 사전에서 찾아내 그 명사 다음 일곱 번째로 쓰인 명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규칙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결과물은 원문과 동일한 서술구조를 지녔기에 어딘가 닮은 듯, 그러나 전혀 같지 않은 새로운 문학작품이 된다. 독자는 이 결과물을 읽으며 원문과 비교해 아주 생소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도통 말이 되지 않는 이 언어들에 일으킨 화학작용에 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읽는다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감각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표현의 양식을 만드는 단초가 된다. 규칙과 제약이라는 방식을 통과한 낯선 문학작품이 독자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실

죽는 날강목까지 하늘다람쥐를 우러러
한 점결탄 부너 없기를
잎채소에 이는 바람꽃에도
나균은 괴로워했다
별감을 노래하는 마음심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양반해야지
그리고 나균한테 주어진 길괘를 걸어가야겠다

오단 밤피꼬리에도 별감이 바람꽃에 스치운다

명사+7 규칙으로 변형된 시 예시

독자뿐만 아니라 작가 또한 울리포의 글쓰기를 실행하면서 기존의 언어가 의미를 갖기 위해 작가에게 행사하던 구속력에서 벗어나 문학의 잠재성을 드러

내며 즐거운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규칙만 지킨다면 누구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들의 이러한 시도들 덕분에 문학은 전통적인 문학예술에 해체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작가와 독자는 낯설지만 신선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문학예술에서 통제된 규칙을 적용해 전통적인 문학의 의미를 넘어서 문학작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올리포의 사례를 발달장애인의 쓰기 행위에도 적용해보자.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 역시 독자의 입체적인 감상을 통해 문학으로 읽힐 여지는 충분하다. 심지어 그것은 오롯이 독자에게 달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문자 언어'라는 명칭 대신 '쓰는 행위'라고 바꿔 부름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언어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또한 그것이, 문학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자. 발달장애인의 문학이 능동적인 독자와 만남으로써 이 세계는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2. 프로그램의 지향

(1) 치료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기

본 예술교육은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당사자가 사용하는 문자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문자를 둘러싼 예술교육을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 발달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거나 글을 요점에 맞게 작성하는 것, 그리고 '쓰는 행위' 자체의 발달이나 증진 또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니다.

(2) 적소 구축하기(niche construction)⁴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감각의 자극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다. 약속된 일정이 약속된 공간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불안과 고통을 줄여준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공간과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는 프로그램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잠재성을 훌륭히 실현하고 나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물리적, 인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적소 구축(niche construction)'이라고 한다. 본 프로그램은 쓰는 행위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적소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

발달장애 당사자가 사용하는 문자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편안하고 안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공간은 발달장애인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존중받는 곳이다.

[4]. 토머스 암스트롱,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신경다양성 안내서」, 강순이 옮김, 새로운봄, 2019. 참조

발달장애인은 그 공간에서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진행자는 공간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는 것 자체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공간이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인지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적소구축

발달장애인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서 그것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

(3) 자기결정권 존중하기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다채롭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예술 활동은 진행되는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며 그것이 쌓여 표현의 양상이 된다. 따라서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장애인은 발달장애인과 여느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결정권을 동등하게 가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기결정이 개인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자기결정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립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친다. 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력자와의 조율과 수정 과정 등을 거쳐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그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5]. 김도현, 앞의 책, 333쪽 '8장 자기결정권, 나와 너 '사이'의 권리: 연립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기결정권' 참조.

만약 조력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 과정도 없이 그의 선택은 실패할 것이라 판단하고픈 마음이 들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평생 성공적인 자기결정만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이다. 발달장애인도 자신의 선택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할 권리가 있다. 다양하게 실패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지난하고 쉽지 않다.

하지만 실패를 예단해 발달장애인이 배제된 방식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보호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그것은 '무시당한 경험'으로 남을 뿐이다. 이러한 무시의 경험이 지속될 경우 자기결정을 행사할 권리도 점차 잊게 된다. 인간의 기본권리가 무시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환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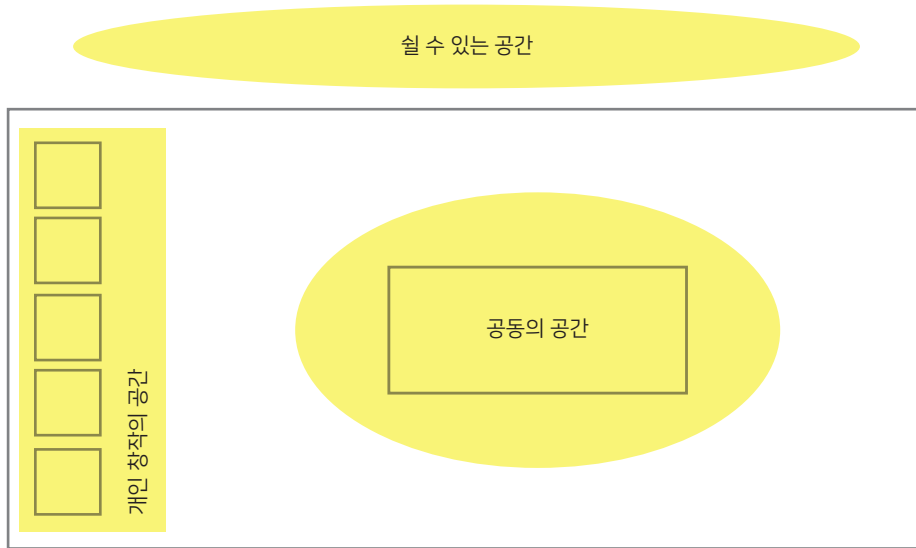
(4) 예술 행위 공간에서 적소구축 돕기의 사례

발달장애인의 적소를 구축한 예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는지 단서를 살펴보자.

1) 아뜰리에 코나스

일본의 지적 장애인 생활보호 시설 <아뜰리에 코나스>는 장애인들의 어머니들이 모여 1993년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창작 작품이 아니라 창작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정과 관계맺음에 초점을 맞춘다. 아뜰리에 코나스는 일반 가정집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아뜰리에 코나스만의 독특한 공간 구성이 돋보인다. 창작 공간 중앙에는 공동으로 쓰는 커다란 책상이 놓여 누구나 둘러앉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책상을 중심으로 한쪽 벽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 창작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구성해두었으며, 맞은편 벽에는 원하는 활동이

생긴다면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들을 배치했다. 만일 휴식이 필요하다면 작업 공간을 벗어나 중정에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으로 자극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이 공동 책상에서 작업하며 스트레스 받을 경우, 개인 책상으로 이동하여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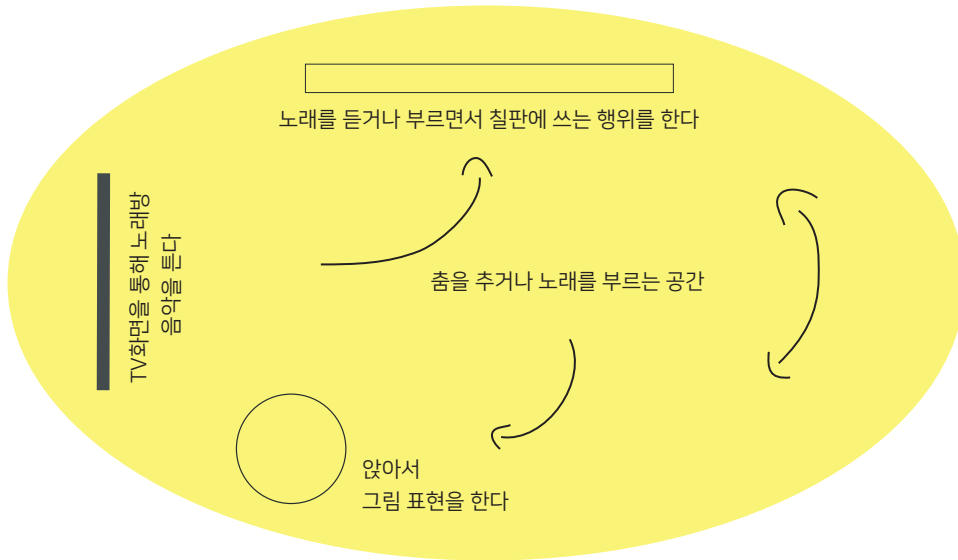
아뜰리에 코나스에서 적소구축의 예시1)

2) 대안적 장애인야학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주어진 곳에서 자신의 적소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공간을 나누어 자신만의 장소성을 설정하고 절차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일례로 서울 한 장애인야학의 예술 수업의 경우, 조력자들은 교육 장소에 필기구 외에도 티비, 스피커와 연결된 컴퓨터를 준비해놓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교육 장소에 도착하면 누구든 컴퓨터를 이용해 노래 반주를 틀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충분히 자기 시간을 가진 뒤 쓰는 행위를 시작한다. 한참 작업을 하다가 지치면 티비 화면과 가장 가까운 책상에 가 앉아 그림 표현을 진행한다.

1. 발달장애인의 문자언어를 편견 없이 바라보기

쉬는 시간에는 다시금 음악을 틀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칠판에 쓰는 행위를 이어가기도 한다.



대안적 장애인야학에서 적소구축의 예시2)

이렇게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스스로 선택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쓰는 행위’에 관한 스펙트럼

(1) 스펙트럼 표기의 의미

1) 더 나은 조력을 위한 도구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를 다양한 스펙트럼 선상에서 파악해보자.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는 크게 ‘의도(의미 표현)’, ‘표현(형태 표현)’, ‘행동(움직임 표현)’ 세 가지 기준으로 그 경향성을 가진다. 세 요소는 위계를 갖지 않으며, 동시에 여러 경향을 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쓰기 표현을 실천하고 있다. 조력자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스펙트럼 표기를 통해 현재 참여자가 드러내는 쓰기 표현의 경향성과 위치성을 헤아려볼 수 있다.

스펙트럼은 무엇이 더 나은 성취인지 판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스펙트럼 표기는 발달장애인의 조력자가 당사자의 ‘쓰기 표현’을 이해하고 더 나은 조력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2) 예술활동 잠재력 파악을 위한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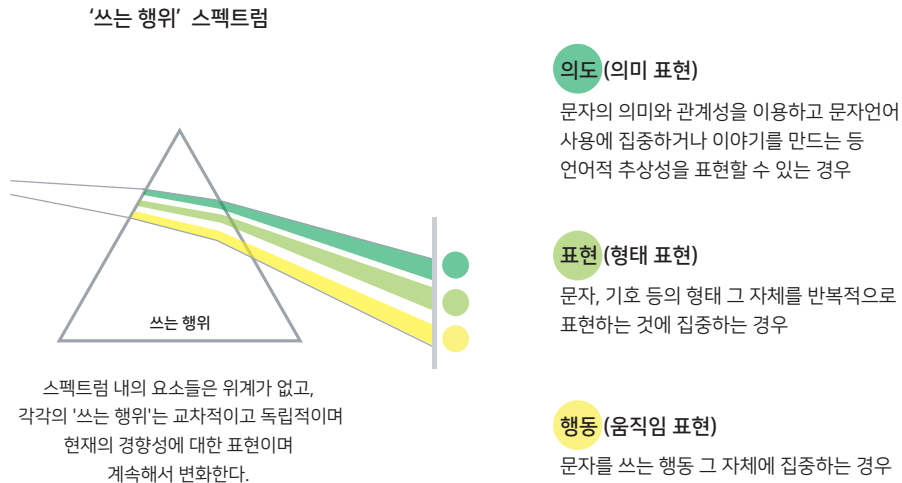
교육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쓰는 행위를 잘 관찰해 행위에 ‘의도’, ‘표현’, ‘행동’ 각 요소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파악해보자. 참여자의 행위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면 행위의 잠재력을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스펙트럼 표기는 앞으로 참여자에게 어떤 예술 활동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또한 참여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즉 적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스펙트럼의 표기 방법

1) 세 가지 요소와 질문들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를 그 경향에 따라 의도, 표현, 행동 세 가지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력자가 발달장애인을 관찰하면서 쓰는 행위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제안한다.



① 의도 (의미 표현)

문자의 의미와 관계성을 이용하고 문자언어 사용에 집중하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등 언어적 추상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 이야기를 이해하고 수집하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 다양한 이야기들을 변형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나요?
-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글을 쓰는 것에 재미를 느끼나요?

② 표현 (형태 표현)

문자, 기호 등의 형태 그 자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

- 글자가 가진 뜻보다 그 글자의 모양에 더 집중하나요?
- 글자를 그림으로 표현하듯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것에 흥미를 보이나요?
- 그림을 그리면서 글자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사용하나요?

③ 행동 (움직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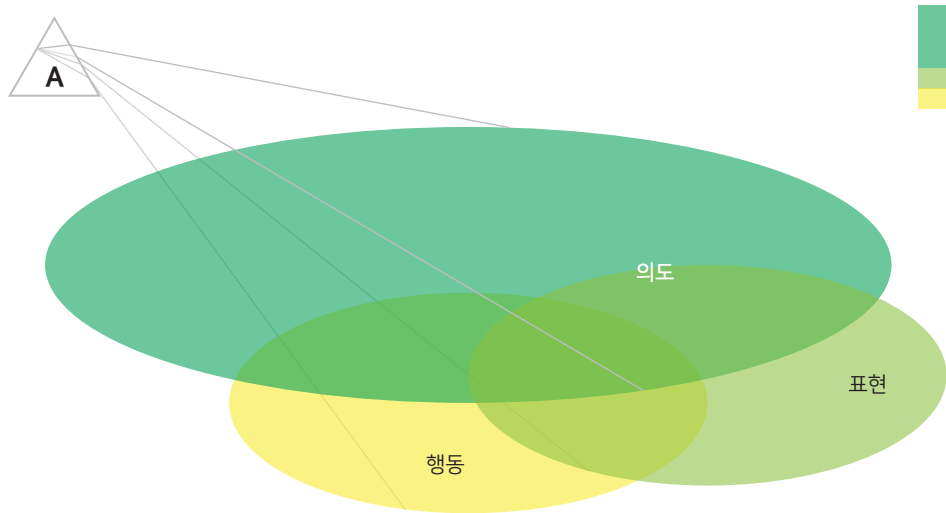
문자를 쓰는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

-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나요?
- 주변인의 쓰는 행위에 관심을 보이며 따라 쓰나요?
- 쓰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안정을 느끼나요?
- 쓰는 행동 자체에 관심이 커 유사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은가요?
- 쓰는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 자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서 등을 표현 하고자 하나요?

*유사글씨: 글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의미는 통하지 않음

2) 스펙트럼 표기의 예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A, B, C, D의 경우를 세 가지 요소와 질문에 따라 스펙트럼 상에 표기했다. 당사자 네 명, 그리고 이들의 조력자와 함께한 인터뷰는 이 책 말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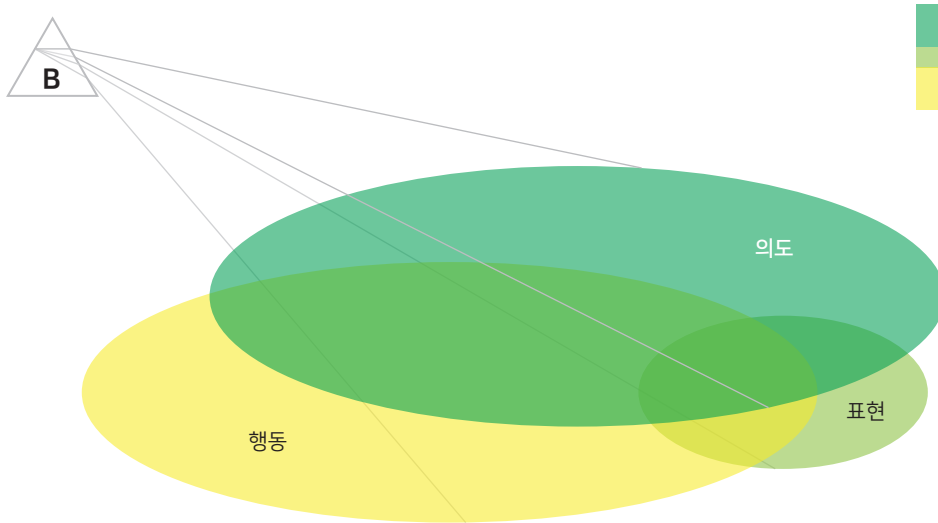


① A의 경우

- 책이나 웹서핑을 통해 고대 신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창작물을 찾아보며, 서사구조를 이해하고 있다.
- 좋아하는 작품의 경우 원작을 토대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작물을 유희한다.
- 창작한 이야기가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 외부인과 언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작품에 대한 말하기 표현이 강의의 형식으로 진화하였다.

> 6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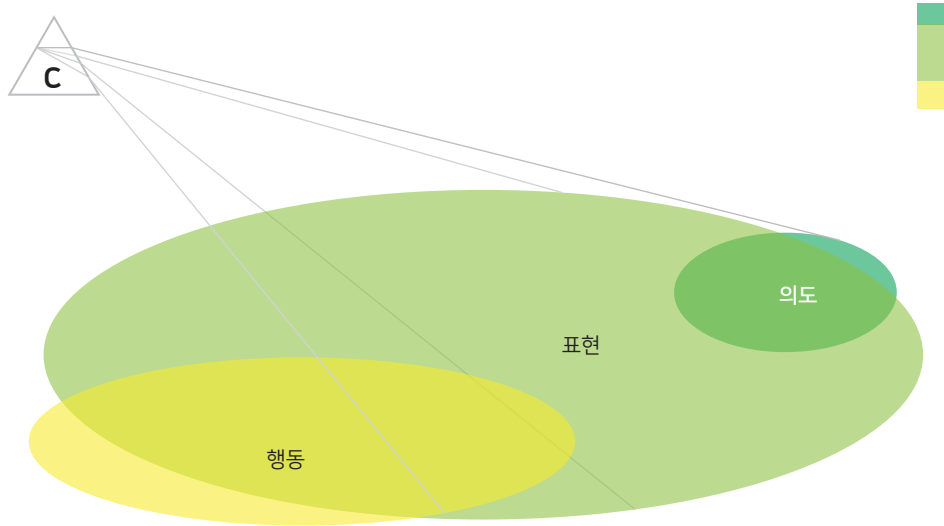
1. 발달장애인의 문자언어를 편견 없이 바라보기



② B 의 경우

- 외부에서 단순 관찰했을 때, 주로 글자 쓰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글자를 거칠게 흘려 쓰며, 여러 방향으로 써 겹칠 때도 있으나, 본인은 각 메모가 지시하는 바를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다.
- 근무하는 곳의 풍경을 서술하거나,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어놓는다.
- 쓰는 행위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게 되는 긴장감 혹은 지루함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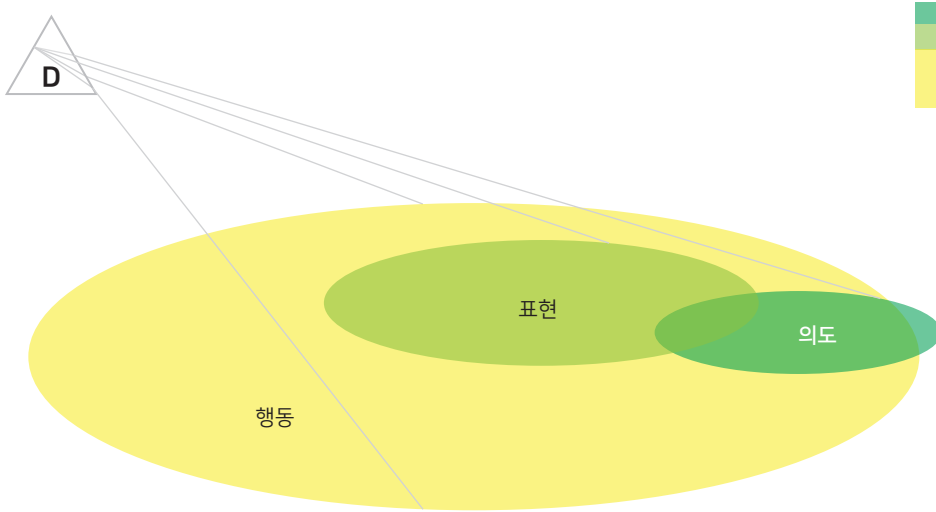
> 82쪽 참조.



③ C의 경우

- 자신의 쓰기 결과물을 읽고 이를 토대로 기억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
- 단답형의 명사로 쓰며, 새로운 이야기나 존재를 창안해내거나 그것을 즐기지는 않는다.
- 정해진 구획 안에서 다채로운 색상의 문자를 소형적으로 유희하며 쓴다.
- 그림, 춤, 노래 등 표현의 영역이 다양한데, 쓰는 행위가 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글씨 쓰는 행위가 더해졌다.

> 96쪽 참조.



④ D의 경우

- 지인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을 수첩에 적어놓고, 기억의 수단으로 삼는다.
- 말로 소통이 어려울 경우 자신의 수첩의 내용을 가리켜 소통한다.
- 관계 지향적이고 소통의 욕구가 커, 유사글씨를 직접 손으로 쓰고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답장 받는 것을 즐긴다.
-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 SNS를 통해 이모티콘 등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손으로 쓰는 행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손으로 쓰는 행위가 스마트폰을 통한 표현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된다.

> 112쪽 참조.

II.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

서로의 돌레가 되어주는 새로운 구조 만들기

1. 자기 돌레 만들기 2. 자기 돌레
3. 자기 돌레 4. 자기 돌레
5. 자기 돌레 6. 자기 돌레
7. 자기 돌레 8. 자기 돌레
9. 자기 돌레 10. 자기 돌레
11. 자기 돌레 12. 자기 돌레
13. 자기 돌레 14. 자기 돌레
15. 자기 돌레 16. 자기 돌레
17. 자기 돌레 18. 자기 돌레
19. 자기 돌레 20. 자기 돌레
21. 자기 돌레 22. 자기 돌레
23. 자기 돌레 24. 자기 돌레
25. 자기 돌레 26. 자기 돌레
27. 자기 돌레 28. 자기 돌레
29. 자기 돌레 30. 자기 돌레
31. 자기 돌레 32. 자기 돌레
33. 자기 돌레 34. 자기 돌레
35. 자기 돌레 36. 자기 돌레
37. 자기 돌레 38. 자기 돌레
39. 자기 돌레 40. 자기 돌레
41. 자기 돌레 42. 자기 돌레
43. 자기 돌레 44. 자기 돌레
45. 자기 돌레 46. 자기 돌레
47. 자기 돌레 48. 자기 돌레
49. 자기 돌레 50. 자기 돌레
51. 자기 돌레 52. 자기 돌레
53. 자기 돌레 54. 자기 돌레
55. 자기 돌레 56. 자기 돌레
57. 자기 돌레 58. 자기 돌레
59. 자기 돌레 60. 자기 돌레
61. 자기 돌레 62. 자기 돌레
63. 자기 돌레 64. 자기 돌레
65. 자기 돌레 66. 자기 돌레
67. 자기 돌레 68. 자기 돌레
69. 자기 돌레 70. 자기 돌레
71. 자기 돌레 72. 자기 돌레
73. 자기 돌레 74. 자기 돌레
75. 자기 돌레 76. 자기 돌레
77. 자기 돌레 78. 자기 돌레
79. 자기 돌레 80. 자기 돌레
81. 자기 돌레 82. 자기 돌레
83. 자기 돌레 84. 자기 돌레
85. 자기 돌레 86. 자기 돌레
87. 자기 돌레 88. 자기 돌레
89. 자기 돌레 90. 자기 돌레
91. 자기 돌레 92. 자기 돌레
93. 자기 돌레 94. 자기 돌레
95. 자기 돌레 96. 자기 돌레
97. 자기 돌레 98. 자기 돌레
99. 자기 돌레 100. 자기 돌레

1. 협업 구조 만들기

(1) 일상 속 특이사항을 교차 기록해 연결망 만들기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망을 연결하고 교차된 기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술교육 프로그램 안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발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화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럴 때 발달장애인의 곁에서 조력하는 사람들의 시점이 발달장애인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시선과 돌레가 된다. 그 시선들을 연결하고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시간을 들여 조력자들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초반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소통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발달장애인은 갑자기 다른 모습과 컨디션을 보일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를 파악하거나 원인을 알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00 씨가 야학 교실에 오셨는데 흥분 상태가 너무 높았고 그 상태로 쪽 있다가 가셨어요. 평소에 하시는 대로 활동을 지원했는데도 거의 변화 없이 계시다가 가셨는데, 나중에 00씨가 계시는 1 장애인 시설의 국장님과 소통해보니 '점심을 안 드시고 수업에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걸 미리 알았다면 수업 중간에 나와서 점심을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지원은 야학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연결이 돼야 되고 탈시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생활의 변화들이 큰데 이러한 상황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

워크망을 잘 구축을 해야겠다고 야학 차원에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매 순간 여러 사람이 지원하고 지켜보는 형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야학에 선 다 대 다 지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대일 지원보다 섬세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한 선생님하고만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은 자립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부터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에게 상호의존하는 법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사람들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면서 생기는 정보량이 다 달라요. 오히려 정보가 많아서 편협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수업에서 변화행동을 보일 때 '활동지원사분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단편적으로 생각했다가 알고보니 그 이유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당사자를 만나온 다양한 연차의 사람들이 있고, 관계의 깊이도 다 다르니까 역할도 서로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학에서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을 오래 맞춰온 선생님들이 있었고 매 수업마다 회의를 하고 기록해오면서 같이 방향성을 만들 온 과정이 있었어요.

박임당(장애인야학 활동가)

(2) 조력자의 역할과 태도 확인하기

1) 도전행동도 관계 맺기의 하나

발달장애인이 본 프로그램에 오롯이 참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조력자의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사소하거나 중요한 수많은 선택들을 쌓아간다. 이때 조력자는 적극적으로 돕는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 만약 조력자가 참여자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는다면, 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되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조력자는 스스로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의 여정은 조력자가 발달장애인과 건강한 개별적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조력자는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낯선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돌발행동이나 타해, 자해 등의 도전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달장애인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조력자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크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조력자의 강한 대처에 발달장애인이 놀라 더 크게 반응하고 강화된 도전행동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이때 조력자는 이러한 행동을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지하고 그의 일상을 구성하는 행동들 중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도전행동의 상황도 관계 맺기의 다양한 지점 중 하나로 인식하고 대응하기를 권한다.



저는 발달장애인을 조력할 때 도전 행동이 인상깊게 남았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를 비장애인은 참을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참아가지가 않아서 자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밀치거나 때려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조금씩 스스로 구분해가고 있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타해 진행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횟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어요. 관계가 넓어지고 환경이 안정화 되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알아가는 것처럼 당사자들도 저희를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하는 비장애인의 행동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편하겠다고요. 어디 가서 교육 들을 때면 공통된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관계가 형성될 때 비장애인마다 행동이 다르니까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은 이랬는데 저 사람이랑은 또 이러네', 시설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계에 제약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설을 나와서 자유로워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야학에서만이라도 공통된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상근자들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력자들은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이나 돌발 행동에 의연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큰 문제의식으로 바라보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감정 표현을 우리와는 다르게 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돌발 행동이 있을 때 쉽고 단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발달장애인들을 대하는 방법에 한 가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각 개인마다 관계는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는 걸 점점 더 느껴서 발달장애인을 대응하는 한 가지 매뉴얼 이런 것은 없다, 000씨와 관계 맺기 매뉴얼, ***씨와 관계 맺기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제가 다르게 대응을 했을 때 발달장애인분들의 반응 모습도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김진수(장애인야학 활동가)

2) 조력자는 문제해결자가 아님을 알기

장애 예술교육을 대할 때 '교육'이라는 단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가 무언가 하나라도 꼭 배우고 가야 한다는 기분이 들 수 있다. 프로그램 강사에게 교육적인 목표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지고, 이를 수행했는지,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 게다가 참여자가 '장애'를 가졌기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치료'의 관점도 함께 생겨나기 쉽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예술교육을 통해 비장애인이 만든 정상의 기준에 가까워져 '나아지고' 심지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지양한다. 교육과 치료의 관점에서는 조력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목표가 전면에서 드러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만약 본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의견과 욕구가 무시된 채 문해력을 높이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조력자의 수업이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이 아니다.

경력이 쌓이고 발달장애인과 관계도 쌓인 조력자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에 있어 자의적 판단을 하기 쉽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은 중요하다. 관계는 항상 변화하기에 조력자가 할 수 있던 일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잘 지원하는 방식일 수 있는데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자신이 경력이 오래된 교사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의 경우도 자신이 이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가 언제든 틀어지고 변화한다는 것을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조력자들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는 나와 친했지만 지금은 안 친한 상황은 계속 발생해요. 감정표현에 솔직한 발달장애인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할 수 없어지기도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임당(장애인야학 활동가)

2. 프로그램의 구성

(1) 워밍업

본격적으로 예술교육을 진행하기 전,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달장애인의 적소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워밍업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낸다면 프로그램 참여자가 안정을 느껴 보다 내실 있는 진행이 가능하다.

1) 공동의 공간과 개별의 공간 구분하기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개별로 사용하는 공간을 책상,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다. 참여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각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소의 위치와 의미를 미리 알린다.

2) 자신의 자리 찾도록 지원하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만의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원하는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비록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교정하려 하는 대신, 규칙을 안내하고 기다린다. 편안한 상태에서 워밍업할 수 있게 시간을 들여 스스로 선택한 자리를 찾고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3) '아무것도 하지 않음' 대면하기

워밍업을 할 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저 머물러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 시간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원하는 활동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조력자로서 이러한 상태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대면할 때, 발달장애인의 고유성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2) 글자블록 교구의 제안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쓰기-예술이 가능한 글자블록 교구와 교육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제안이 앞으로 상상되고 개발될 수많은 '쓰는 행위' 예술 교육의 한 사례로 참고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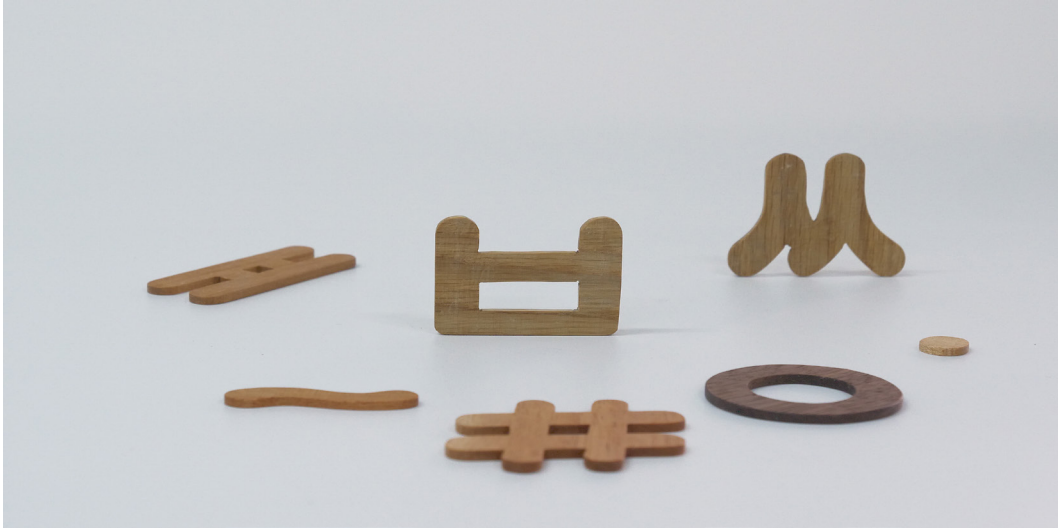
1) 의도-표현-행동 사이 지점의 확장

'쓰는 행위' 스펙트럼과 사례조사를 토대로 특별하게 고안된 글자블록을 통해, 글자를 아는 참여자에게는 조립과 해체를 통해 재미를 주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참여자도 표현, 쌓기 놀이 등을 통해 글자 형태에 친숙해지도록 돕는다.

글자에 친숙함을 넘어서 익숙해진 참여자가 항상성의 범주 안에 '문자를 활용한 표현하기'를 포함시킨다면, 참여자는 자신의 표현 범위를 확장하는 도구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조력자는 참여자가 의도-표현-행동 그 사이를 스스로 부유하며 유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글자블록 교구의 특징

① 납작하고 질감이 살아 있는 평면 글자블록



글자를 익히는 학습에서 표현 행위로 전환

글자는 반드시 익히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글자를 표현과 행동의 영역으로 의미를 전환해보자. 새롭게 고안된 평면 글자블록은 그림과 글자 사이 지점의 표현을 즐길 수 있는 교구이다.

- 납작 나무판으로 제작 : 자음 59개, 모음18개 , 문장부호 17개로 구성



납작 나무판 교구 예시

한글은 기본 자음 14자, 모음 10자를 통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치에 따라 자음과 모음의 모양과 크기는 달라진다. 기본 자음도 위치에 따라 길이, 크기가 다른 세 가지 모양새이며, 기본 모음도 두 가지 이상의 모양새를 가진다.

ㄱ ㄱ ㄱ ㄱ ㄱ ㄱ
 ㄴ ㄴ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ㄹ ㄹ ㄹ
 ㅁ ㅁ ㅁ
 ㅂ ㅂ ㅂ ㅂ ㅂ ㅂ
 ㅅ ㅅ ㅅ ㅅ ㅅ

○ ○
 ㅈ ㅈ ㅈ ㅈ ㅈ
 ㅊ ㅊ ㅊ ㅊ
 ㅌ ㅌ ㅌ
 ㅍ ㅍ ㅍ
 ㅎ ㅎ ㅎ

ㅊ ㅊ ㅊ ㅊ ㅊ ㅊ |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 “ ” #
 !! ?? % () < > . , ~

글자블록 디자인 제작 예시

48 새롭게 고안된 글자블록은 다양한 크기로 초성, 중성, 종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자음의 수가 총 59개로 구성되어 있다. 모음 또한 기본 10개에서 크기별 구성을 위해 8개를 더해 제작했다. 문장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큰따

쓰는 행위 -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쓰기-예시

옴표, 작은따옴표, 물결표, 괄호, 빗금, 우물 정자)도 글자와 같이 조합할 수 있도록 함께 넣었다.

- 특징

자음과 모음 각각의 형태와 크기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글자를 손으로 만져보며 형태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글자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

- 추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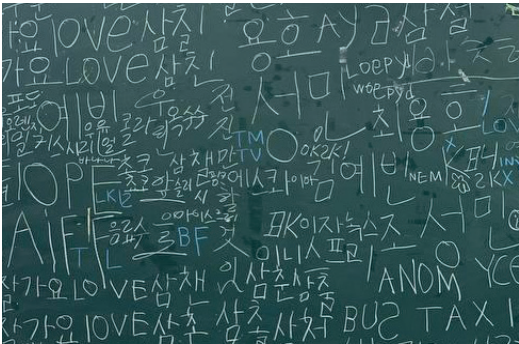
‘쓰는 행위’에 욕구는 있으나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예술교육 현장에서 ‘쓰는 행위’에 욕구는 있으나 표현에 두려움을 느끼며 망설이는 성인 발달장애인 역시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으나, 발음에 따라 자모음이 구성된 것을 이해하기보다 그림 형태로 익힌 측면이 있다. 또한 자신이 글자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해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본 글자블록은 그러한 발달장애인에게 스스로 글자를 배치해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글자 완성의 성취 경험을 쌓는다. 블록의 글자는 그림 표현의 일종이기에, 이를 통해 글자와 친숙해질 수도 있다. 다만 본 활동이 ‘글자 이해’가 목적이 아니라 ‘글자 유희’로써 글자와 친숙하게 만들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대체교구 제안

두꺼운 도화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음과 모음을 그리고 오려내 만들 수 있다. 혹은 카드지에 자음과 모음을 각각 써서 글자를 조합하거나 해체해볼 수 있다. 납작하지만 표면에 재질감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프 로타주를 수행해볼 수 있다.

② 각각 형태가 다른 칠판 재질의 입체 글자블록



'쓰는 행위'를 평면에서 입체로 전환

쓰는 행위에 표현(글자 쓰기)과 행동(쌓아 올리기)이 맞물려 일어날 수 있도록 고안된 글자블록이다. 원하는 글자를 쓰고, 해당 블록을 겹겹이 쌓아올리며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 형태가 다른 나무블록 : 10x10x5cm 정도의 크기, 30개로 구성



입체 나무판 교구 예시

II.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

납작 나무블록이 글자의 형태를 정확하게 제시한다면, 입체 나무블록은 조형과 놀이 행동에 초점을 둔다. 크기는 가로 세로 10cm에 높이 5cm 내외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기둥, 세모, 사다리꼴, 오각형 등 다양하다. 입체 나무블록에 칠판 페인트를 칠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표면에 분필로 직접 '쓰는 행위'를 수행하고 자신만의 나무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

- 특징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히 손안에 쥘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자신이 쓴 글자들을 직접 쌓아올리며 공간감을 익히고 놀이로도 즐길 수 있다.

- 추천 대상

'쓰는 행위(표현)'가 평면에 쌓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쓰는 행위는 반드시 몸을 움직인다. 블록을 쌓거나 도미노처럼 줄을 짓거나 자유롭게 배치를 바꾸며 즐겁게 움직일 수 있다. 글자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다양한 표현 활동으로 이어진다. 자신이 직접 글자를 적어 넣을 수 있기에 주체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원하는 참여자에게 추천한다.

- 대체교구 제안

시중의 나무블록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블록을 재활용해 칠판 페인트를 칠해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종이상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

3) 글자블록을 활용한 프로그램 안내

① 감각 활동 중심으로

쓰는 행위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표현활동을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촉각적인 쓰기	
기획의도	<p>‘쓰는 행위’에 욕구는 있으나 두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를 위해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닌 촉감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성함.</p> <p>글자의 형태를 물질적으로 만짐으로써 글자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도록 구성함.</p>	
인원	5~10명	
진행 시간	1회 2시간 (30분 전후로 10분 내외 휴식시간 배치)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 강사) 1~2명, 보조인력 2명, 관찰기록자 1명	
구성 및 내용	글자에 이해가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천 자루에서 납작한 글자 블록을 하나 꺼내어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본다. ② 촉감으로 글자를 알아맞히는 게임을 한다. ③ 글자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거나 해체하면서 단어 혹은 문장을 만들어본다. ④ 글자블록 위에 종이를 올린 뒤 색연필, 목탄 등을 문질러 종이 위에 블록의 모양이 드러나는 ‘프로타주(frottage)’를 진행해본다.

	<p>글자에 이해가 있는 경우</p>	<p>⑤ 글자뿐 아니라 그림의 형태, 그림과 글자의 형태가 뒤섞일 수 있으며,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구성 및 내용</p>	<p>글자에 이해가 없는 경우</p>	<p>① 천 자루에서 납작한 글자 블록을 하나 꺼내어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본다. ②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거나 해체하면서 유사 글자 혹은 그림의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어본다. ③ 글자 블록 위에 종이를 올려 색연필, 목탄 등을 이용하여 프로타주 해본다. ④ 글자뿐 아니라 그림의 형태, 그림과 글자의 형태가 뒤섞일 수 있으며,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유의사항</p>	<p>글자를 익히는 시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함. 글자를 아는 참여자와 모르는 참여자가 함께 있을 경우 글자를 안다는 것보다 함께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 함.</p>	
<p>프로그램 여건</p>	<p>납작한 글자블록뿐 아니라 프로타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물체를 준비해두면 표현활동의 폭이 확장됨. 프로타주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넓게 앉음. 종이 크기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음.</p>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청각적인 쓰기
기획의도	글자가 소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는 '쓰는 행위'와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음. 정적인 '쓰는 행위' 대신 역동적인 '쓰는 행위'를 경험하게 함.
인원	4~5명
진행 시간	1회 2시간 (30분 전후로 10분 내외 휴식시간 배치)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 강사) 1~2명, 보조인력 2명, 관찰기록자 1명
구성 및 내용	<p>① 목소리를 내는 소란스러운 활동임을 안내한다.</p> <p>② 소리언어(의성어)를 글자 블록으로 조합하여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시작한다. 동물의 실제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방식도 가능하다(아, 에, 이, 오, 우, 음, 야, 후, 하, 호, 칼라, 멍멍, 야옹, 꼬끼오 등).</p> <p>③ 몸짓언어(의태어)를 글자 블록으로 조합하여 행동으로 표현한다(슬금슬금, 획, 쓱쓱쓱, 살금살금, 어슬렁어슬렁 등).</p> <p>④ 글자를 아는 경우, 조합해서 말로 뱉어보도록 할 수 있다. 글자를 모르는 경우, 하고 싶은 말을 글자로 조합해 보는 시도를 조력자와 함께 해본다.</p>
유의사항	소리에 예민한 참여자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을 숙지함. 참여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하거나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니 공간이 구획된 곳에서 소수로 그룹 지어 할 것을 권장함.
프로그램 여건	소리를 크게 내도 되는 교육 환경에서 진행할 것. 악기나 마이크 장치 등을 이용해 소리 내는 행위가 노래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음.

II.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쌓아올리는 쓰기
기획의도	'쓰는 행위'와 동시에 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함. 정적인 것을 힘들어하는 참여자에게 쓰기와 쌓아올리기 활동을 연계할 수 있음.
인원	4~5명
진행 시간	1회 2시간 (30분 전후로 10분 내외 휴식시간 배치)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 강사) 1~2명, 보조인력 2명, 관찰기록자 1명
구성 및 내용	<p>① 입체 블록의 표면을 만져보고 기존의 블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본다.</p> <p>② 분필을 나눠주어 입체 블록에 쓰거나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p> <p>③ 쓰는 동시에 블록을 쌓아올리는 참여자도 있고, 쓰고 난 뒤 도미노처럼 지면에 블록을 세우는 참여자도 있을 것이다. 참여자 스스로가 구성하도록 안내한다.</p> <p>④ 글자와 글자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쌓아올리기도 하고, 입체 블록과 분필과의 마찰에서 생기는 표현과 소리에 집중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p>
유의사항	<p>참여자의 자리 간격을 넓게 구성하여, 움직임이 서로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함.</p> <p>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을 개별 지정하거나, 모든 블록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p> <p>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 규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참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p>

프로그램 여건	<p>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 책상과 의자가 없는 넓은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음.</p> <p>블록은 종이 박스 같은 것으로 더 크고 활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p>
------------	--

② 관계 활동 중심으로

많은 예술교육 현장에서는 비장애인 조력자 한 명과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수업한다. 참여자가 조력자와 일 대 일 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프로그램은 이를 참여자 간의 관계 형성으로 이끄는 활동이기도 하다.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주위 환경과 조우함으로써 예술활동으로 타인과 공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프로그램명	이어 그리는 쓰기	
기획의도	참여자와 참여자가 '쓰는 행위'를 주고받으며 공동창작함으로써 '개인'의 쓰기가 '공동의 쓰기'로 이어지게 함.	
인원	5~10명	
진행 시간	1회 2시간 (30분 전후로 10분 내외 휴식시간 배치)	
매개자 구성	진행자(예술가/기획자/ 강사) 1~2명, 보조인력 2명, 관찰기록자 1명	
구성 및 내용	납작블록의 경우	① 납작 블록을 천으로 된 자루에서 꺼내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

II.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

	<p>납작블록의 경우</p>	<p>② 커다란 종이를 펼쳐 납작 블록 위에 올려두고 프로타주를 한다.</p> <p>③ 다른 사람의 프로타주를 보고 돌아가면서 자음과 모음을 덧붙이며 글자와 표현을 확장한다.</p> <p>④ 저마다의 방향에서 시작한 '쓰는 행위'가 교차되고 중첩되면서 공동의 작업이 진행된다.</p>
<p>구성 및 내용</p>	<p>입체 블록의 경우</p>	<p>① 입체 블록에 저마다 글자/기호/그림 표현을 한다.</p> <p>② 블록을 쌓기 위한 규칙을 정한다. 한 사람이 하나씩 쌓아올린다, 다른 사람이 쌓아올릴 때는 기다린다, 등등 함께 활동할 때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해야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p> <p>③ 두세 명이 짝을 지어 정한 규칙에 맞춰 블록을 쌓아올린다.</p> <p>④ 위로 쌓는 표현, 지면을 넓히는 표현 등 표현의 방식을 다각도로 제안한다.</p> <p>⑤ 글자를 독해할 수 있는 그룹인 경우, 쌓은 글자 표현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본다.</p>
<p>유의사항</p>	<p>공동 작업에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규칙을 정하는 것.</p> <p>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참여자의 경우, 규칙의 변화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므로 규칙을 정확하게 제시하거나, 함께 규칙을 만들어볼 것을 권함.</p> <p>공동 작업이 맞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작업을 지켜볼 자리나 혼자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p>	
<p>프로그램 여건</p>	<p>공동 작업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발달장애인이 쉴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틈틈이 배치.</p> <p>공동의 작업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함을 상기.</p>	

(3) '하고 있지 않음'을 공간에 같이 두기

프로그램은 목표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음, 그저 같이 존재함도 중요하다. '하고 있지 않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1)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공간에 함께 있기

참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당장 하지 않을 뿐 언젠가는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는 지금 이 시공간에서 항상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2) 흥미가 없다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기

당장의 '쓰는 행위'보다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력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하는 참여자도 있다. 그들은 이 공간에 오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다. 사회적 활동을 지지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3. 프로그램 적용 시 유의 사항

(1) 서로가 만나는 방식을 유연하게 찾아나가기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향유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방적인 학습이나 치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쓰는 행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나 결국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혹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로서 제시한 것이지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서로가 건강하게 닿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유연하게 변주, 변형하여 진행해야 한다.

(2) 새로운 상상력 발휘하기

제안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절대적인 조건과 방법은 없다. 본 프로그램은 30~40명의 발달장애인을 7년여 간 만난 경험과 사례 인터뷰를 통해 고안하였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비장애인이 저마다의 성격과 속도를 가졌듯 발달장애인 또한 저마다의 개인성과 속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물론 발달장애인의 유형은 있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그 유형은 비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이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성장환경, 건강, 복합장애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저마다의 방식대로 수많은 사이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3) 프로그램의 실패와 함께 하기

활동의 목표는 언제나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사실로 귀결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애초에 활동 목표란 비장애인의 비대한 상상력 혹은 빈약한 상상력을 통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비단 장애인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실패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4) 진짜 성취

예술 활동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하지만 조력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사실 프로그램을 통한 궁극적인 변화는 장애인과 만나 과정을 함께한 비장애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비장애인은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장애인 예술교육이,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데 까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진정한 돌레로 변모한다. 다음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조력자가 느낀 변화와 성취를 가늠할 수 있는 인터뷰 일부이다.



저는 수업에 오는 것이 재밌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에서 실수하면 안 되고, 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어서 발달 장애인분들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저도 즐거움이 있어요. 전에 했던 장애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분들의 창작에 중점이 있어서 창작을 도와야

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성과를 비장애인이 증명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즐겁지 않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문화예술 활동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들 수업에서는 참여하는 분들을 창작자가 되도록 조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가 이 수업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순수하게 즐기고 있어요.



저는 발달장애인과 수업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있어야 되지, 너무 힘들어서 무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잘 조력을 해야 된다,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장애인이니까 더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비장애인의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혹은 알아차릴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었어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 빨리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나도 돌보면서 서로 같이 돌볼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수업의 목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저도 즐거움이 커서 계속 오고 싶고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생동감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다 다른 소통과 감각을 표현하시니 저도 다양한 감각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소통하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실 때도 있는데 저도 '맞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라고 이해하게 되고, 표현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늘 힘들어요. 늘 버겁다고 생각하고 매일 긴장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쌓이면서 긴장도는 조금씩 낮아졌지만 그래도 매번 힘들고 끝나고 나면 진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조력하는 일을 충분히 했으니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진 않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감정의 큰 기복과 빠른 변화와 솔직한 표현들이 매번 힘든데 질리지 않아요. 너무 중독성이 강해요. 맨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것을 하지만 전혀 똑같지 않아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교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문해 교육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한글반 교사를 해보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왔어요. 결정적으로 못했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 가르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수생 눈술 강사 경험도 있고 가르치려고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런 관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르치거나 잘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가능한 없애는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발달장애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20년 전 선생님을 갑자기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인데, 7년 정도의 시간은 길게 관계 맺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달라지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 너무 친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올 수는 있어도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4. 서로에게 돌레가 되어주기

'쓰는 행위'는 발달장애인이 시도하고 집중하는 다양한 쓰기의 실천을 모두 아우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를 의도, 표현, 행동으로 세분화하여 스펙트럼을 넓히고 조력자로 하여금 쓰는 행위를 지나치지 않고 사려 깊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 발달장애인의 자유로운 쓰는 행위를 지원하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아냈다.

다양한 방식의 쓰는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조력자의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환경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교차시키고자 했다. 이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란 적소구축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며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순간의 모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고안한 글자블록은 글쓰기나 문해력 향상 등 교육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자신만의 표현과 행동을 드러내고 놀이적 관점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교구이다. 쓰는 행위가 표현과 행동, 관계, 놀이적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이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력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명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조력자와 발달장애인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으나, 창조적인 상상력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목적이 아닌 조력자의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주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조력자(비장애인)이다. 조력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성찰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개인성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장애인 조력자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이, 그리고 사회와 그들과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데까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때 이들은 장애인들의 진정한 돌레로 변모한다. 모든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조력자가 발달장애인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여정이다.

Ⅲ. ‘쓰는 행위’가 중심이 된 사례 연구 인터뷰

저마다의 돌레를 가지는 사람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쓰는 행위'는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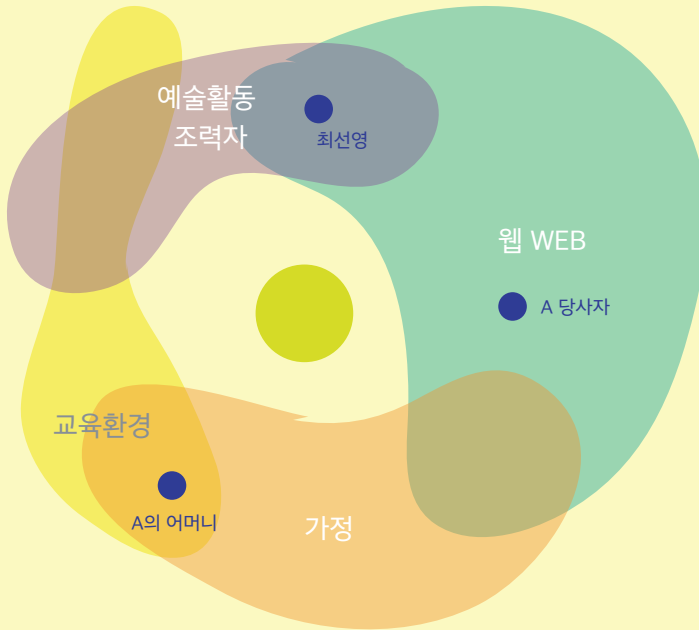
그 요인들은 개별적이나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으며 중첩되어 있다. '쓰는 행위'를 저마다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 네 명의 발달장애인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을 만났고 그들과 가깝게 관계 맺고 있는 양육자, 근로지원인, 활동가, 예술조력자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요인들을 구체화시켰다. 어떤 환경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쓰는 행위'가 구성되었고 그 환경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변화를 선택해왔는지 인터뷰했다. 발달장애인의 '쓰는 행위'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누었다. 인터뷰의 내용을 발췌, 편집하였으나 조력자들의 시선과 입장이 드러나길 바라여 요약하는 글로 만들지 않았다.

인터뷰어 백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성인 창작모임 '틈사이로' 작업실에서 조력자로 활동했으며 2019 노들장애인야학 낮수업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네 명의 사례 맨 앞에 놓인 각각의 그림은 수치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인터뷰이가 느꼈을 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둘레, 환경에 대해 직관적으로 그려낸 그림이다. 중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이며 부모, 활동가, 예술 조력자, 근로지원인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둘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표시해두었다.

1.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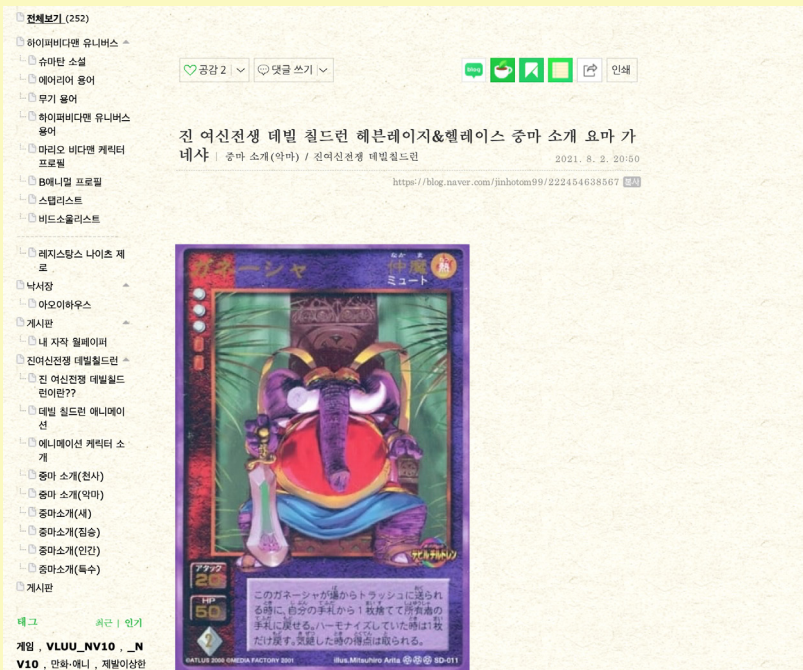
웹은 A가 쓰기의 자료들을 찾고 수집하고 창작물을 게시하는 데 중요한 장소이다.

A의 어머니는 가정생활과 교육환경을 제공한 주 양육자이다.

최선영은 시각예술가이면서 예술기획자로 A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 조력자이다.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A라고 합니다. 동물과 신화 이외 국가의 역사 그리고 비드맨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생물을 알고 공룡이나 동물들을 알고 신화를 알고 환수나 신, 악마, 천사를 안다는 것은 기쁘지 않으신가요? 여러모로 제가 제 세계관을 구상하기 위해 시작하게 된 노력이랍니다.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는 망상이 굉장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깊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 '하이퍼비드맨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은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일부 설정을 들어보실래요? 제 세계관에는 우리가 아는 신과 천사 악마 외에도 창조신이라는 가공할 만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A)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블로그

(2) 당사자 인터뷰

웹 리서치와 기록에 대해 A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백구 A씨가 매일매일 리서치하고 기록하잖아요. 컴퓨터로 리서치하고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리서치하고 어떤 걸 기록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A 주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건볼트나 롱맨 같은 그런 게임요.

백구 게임 리서치를 많이 하세요?

A 설정 스토리, 설정을 좋아하는 것들을 듣기.

백구 스토리 설정 같은 것을 주로 조사하시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찾으세요?

A 구글에 있죠.

백구 그러면 검색어를 한글로 찾으시는 거예요?

A 한글로 찾기도 하고 영어로 찾기도 하고 그렇죠.

백구 그러면 게임 설정, 스토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블로그라든지.

A 네.

백구 다른 사람들이 포스팅한 것을 보고 정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처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포스팅을 찾는군요.

A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채팅을 하려 하기도 하고, 요새는.

백구 댓글도 달아요?

A 채팅.

백구 채팅을 무엇으로 해요?

A 네이버 카페 채팅요.

백구 평소 웹서핑, 리서치는 몇 시간 정도 하세요?

A 두 시간에서 서너 시간 정도.

백구 두 시간에서 서너 시간은 너무 차이가 큰데요?

A 많은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백구 주로 웹 서핑을 하시고 댓글도 다시고 사람들이랑 채팅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조사한 내용들을 기록도 하세요?

A 기록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제 세계관식으로 수정하죠.
리파인(refine)하죠.

백구 그 조사한 것을 A씨 블로그에 남기시나요?

A 아니요. 요새는, 아직. 블로그 쓸 마음은 안 나서. 지금은 그냥
제2 창작 카페에다 제 소설을 올려요. 2차 창작 관련 카페거든요.

백구 2차 창작 카페 이름이 뭐예요?

A 창작 커뮤니티 드림월드, 창작 커뮤니티 드림월드.

백구 A씨 소설을 올렸을 때 카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A 사람들 반응이요? 그냥 댓글은 안 남기고, 그냥 공유, 시청하는
사람들만 많긴 한데 댓글 다는 사람은 없고. 보는 사람들은 있지만
댓글은 없어요, 별로.

백구 그럼 A씨는 다른 사람들 2차 창작물의 댓글도 남기세요?

A 조금 관심 있는 것만 남기죠. '루시페르'라고 쳐보면 돼요. 루시페르.

백구 루시페르? 무슨 뜻이에요?

A 사천사, 루시퍼, 루시페르는 일본식 발음이에요.

백구 요즘에는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에 많이 글을 올리시고, 종이에 쓰시는 건 잘 안 하세요?

A 네, 요즘은 별로 안 해요.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백구 온라인으로 쓰는 게 편하신 거죠?

A 네, 그렇습니다만.

백구 블로그 활동은 요즘 왜 안 하세요?

A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스토리는.

백구 스토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완성된 스토리만 A씨 블로그에 올리시는 거예요?

A 네.

백구 요즘에 도서관 자주 가세요? 요즘 빌린 책이 뭔지 궁금해서요.

A 신들의 이야기와 신들 이야기.

백구 요즘엔 그림 그리시는 것보다 소설을 많이 쓰세요?

A 글도 쓰고 그림도 쓰는 건 하는데.

백구 궁금한 게 소설에 있는 캐릭터가 그림으로도 나오나요?
아니면 그림의 세계관과 소설의 세계관이 각각 따로예요?

A 소설하고, 그림 설정,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걸 동시에 하는 식인데요.

백구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설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림의 어떤 설정을 소설로 쓰기도 하시는 거예요?

A 네.

백구 2차 창작을 하는 게 A씨의 세계관에 어떤 도움이 돼요?

A 세계관에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죠.

백구 어떤 아이디어요?

A 재미와 만족감.

백구 무기 설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빌려온다든지 하는 거예요?

A 네.

백구 '하얀 강철의 익스'에서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A 초능력자들이요. 게다가 변신을 했을 때 동물 별자리 모티브라는 점이요. 황도 12궁 보스들.

백구 '하이퍼 비드맨 유니버스'랑 유사하네요.

A 대부분 인간이나 로봇이니까, 개들은 초능력자라는 게 인간이나 로봇이 있거든요. 나무위키 검색해서 그 스크립트 보면 이해가실 거예요.

백구 지금 A씨가 쓰신 '백강의 장'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등장인물로, 아큐라에 대사가 적혀 있잖아요.

A 게임 대사를 좀 겨냥한 것들이 있어요. 원래 게임에 나오는 대사들도 있고.

백구 게임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A씨가 변형한 것도 있는 거군요? 어떤 부분이 변형된 거예요?

A 새로운 천사 종족이 있고, 레플리로이드라는 용어가 나와요.

백구 레플리로이드? 레플리로이드가 뭐예요?

A 롱맨 시리즈에 나오는 로봇인데, 인간에 가까운 감정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지능을 가진 로봇인데, 레플리로이드가 다른 애정으로, <롱맨 제로>라는 게임하고 <롱맨 잭스>라는 게임의 사이 시대예요.

백구 다른 설정에 있는 것을 여기 캐릭터에 들여온 거죠?

A 네.

- 백구 이렇게 웹에서 A씨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과 저나, 예술 조력인 선생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 A 선생님들에게 천천히 설명해요. 그렇게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 백구 저같이 게임의 스토리 설정,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 A 아니면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든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세계관을 한순간에 이해하는 건 어려우니까.
- 백구 그런데 A씨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질문하면 어때요?
- A 짜증이 나지 않도록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하고.
- 백구 A씨의 세계관을 궁금해해주고 계속 들어주는 게 좋은가요?
- A 그렇죠. 그래도 그 관심 있는 부분을 통해 새롭게 뭔가를 알 테니까요.

(3) 조력자 인터뷰: 예술인의 조력

1) A의 양육자

A의 어머니와 A의 학년기와 성장과정에 관한 인터뷰를 나눴다.

A의 어머니 애착장애라고 진단을 받고 한 1년 정도 병원에서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다녔어요. 미술심리, 운동, 음악 등 다양한 특수교육을 받았어요. A는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안학교를 갔어요. 대안학교 가면서부터는 치료교육을 안 했죠.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갔다가, 대안학교를 2년 동안 다니고 아빠 직장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죠. 1년 정도, 인도네시아에서는 학교 안 다니고 저랑 같이 집에서 맨날 수영 했어요. 수영장이 있는 집이어서 우리는 수영만 했죠. 그때 A가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왜 아무것도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재미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와서는 다시 대안학교에 가지 않고 할머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검정고시 학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A의 작업물

백구 A씨는 언제부터 괴수, 환수세계에 빠진 거예요?

A의 어머니 아주 어렸을 때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보통 아기들이 다 그렇겠지만 의성어 의태어를 하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야옹'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동물의 소리나 모양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A를 데리고 동물원을 다녔어요. 그러면 말을 시작할까 해서요.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니까 제 손을 잡고 끌어다가 말(동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을 그리고 A가 소리를 내고 이런 놀이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보이더니, A가 초등학교 갈 무렵 되니까 포켓몬, 디지몬이 유행했어요. 그때 즈음부터 학교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고, '상상의 동물' 같은 책을 보기 시작 하더라고요. '산해경' 같은 것. 산해경은 중국의 환상의 동물들을 기록해둔 사전 같은 책인데, 되게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죠. 남자애들이 동물에 관심이 있다가 공룡에 관심이 있다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A는 환상의 동물에 관심이 있다가 신화로 관심이 옮겨간 것 같아요.

백구 A씨는 소설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면서 문자의 추상적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A 씨의 성장 과정에서 '쓰는 행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A의 어머니 문자언어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변에서 무엇을 해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그게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가 재미있고 흥미 있어 하는 것을 하려면 언어를 계속 써야 되고, 그걸 계속 읽어야 되니까요. A의 세계관 '하이퍼비드맨유니버스'라는 것이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신화, 괴수 이야기를 두루두루 포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조사해야 하고. 읽기 능력은 자기가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A를 보면 영어나 일본어도 조금 하거든요. 자신이 재밌는 것을 자꾸 찾아보고 해야 되니 검색하는 것도 영어로 검색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검색했을 때 찾아지는 게 있으니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키워지는 것 같아요. A는 특수교육을 어릴 때 시작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돌아보니 그런 것 때문에 A가 성장했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 게 컸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A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끌어올려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 백구 비장애인에게는 고기능 자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 A의 어머니 맞아요. 사실 부모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로 저도 좀 힘들었죠. 애가 더 어렸을 때, 더 많이 잡았죠. 공부가 되는데! 막 이러면서 조금해 했죠.
- 백구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나도 엄마는 처음 해보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교육을, 혹은 치료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A의 어머니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해보죠.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해볼 수 없는 것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왜 저것을 못 해주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내 상황이 안 되는 경우인데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혹은 '왜 너는 그게 안 되냐' 하면서 다그치게 되기도 하고, 사실 되게 나쁘거든요. 그런데다가 주위 시선까지 그러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까지,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 백구 언제부터 치료나 교육 등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 A의 어머니 제가 마흔 정도 될 무렵에, 그러니까 A가 대안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그만하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냅둬보자'고. A의 아버지가 "냅두자,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서로 불편한 것은 나누면서 지고 가는 거지, 뭘 이렇게. 그냥 사람들도 좀 불편하게 두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젊었을 때라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젠 A의 아버지가 안 하던 걱정을 하고, 도리어 제가 "괜찮아 그냥 좀 냅두자."



강의 퍼포먼스 하는 A의 뒷모습 사진

2) A의 예술 활동 퍼실리테이터

2014년부터 2015년 A의 예술 활동을 조력한 최선영과 학년기 이후 A의 예술 활동의 시작 시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백구 A씨는 괴수나 환수세계를 혼자 리서치 하며 블로그 활동이나 소설을 쓰던 시기가 있었고, 학령기가 지나 20대 초반에 예술 활동 영역으로 와서 A씨가 해온 활동들이 예술 활동으로 지지를 받았잖아요. 예술 활동으로 지지를 받는 환경으로 변화한 이후 A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했어요.

최선영 저나 A씨 어머니 기준에서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은 A씨를 좀 더 신이 나게 만들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복지관이나 학교 등에서 A씨가 하는 행위 중에 어떤 부분만을 표현 행위, 예술 행위, 미술 행위로 사회적인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A씨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행위부터가 작업이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자기 리서치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별 거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심지어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동행해주고, 부추겨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A씨가 더 신나게 표현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리도 만들어진 거죠.

저는 A씨의 표현을 관찰하고 존중해주는 것뿐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을 제안 했는데, 그게 강의를 해보자는 거였죠. 평소 A씨가 하고 있던 표현 행위에서 크게 벗어나서 억지로 뭘 하는 것은 아니라, 표현의 장으로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A씨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거나 실제로 계원예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하고 제가 동일하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건 A씨가 평소와 다르게 타인을 굉장히 고려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 심지어 배려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신이 났다기보다 자신의 표현 행위를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씨가 더 신이 나니까 강의를 하는 표현 행위 자체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해해주는 타인이 존재한다는 걸 스스로 감지하면서 좀 더 사회적인 제스처나 표현을 하려고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이 변화라면 일시적인 변화, 순간적인 변화들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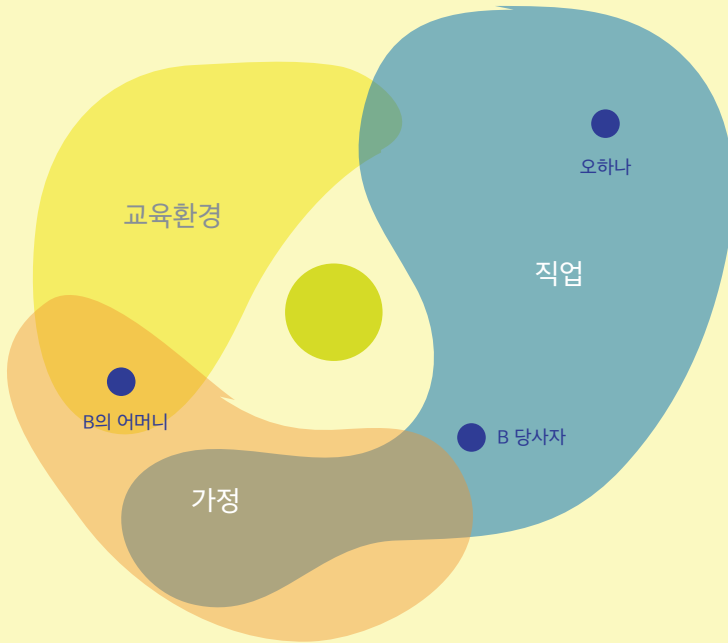
지금 A씨는 '예술장돌뱅이'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세요. '예술장돌뱅이'에서는 타인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사람과 어울리는 동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러려면 타인의 얘기를 A씨도 들어야 하는 거죠. 신나서 이것저것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되게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술 활동들이 A씨 개인의 창작을 더 내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타인과 A씨의 세계를 연결해보는 것,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에 A씨의 표현 활동을 놓아봐서 폭넓은 소통을 실험해보는 것 등이요. 특히 제가 이런 활동들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 성향상 그 사람의 내밀한 것만 관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과 연결 짓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A씨의 성향과도 맞았던 거죠.

A씨가 조금씩 일시적으로 변했다고 보지만,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요. 저하고 관계가 쌓이니까 저를 많이 믿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씨는 저에게 무언가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 A씨가 “선생님은 통찰력이 있으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그려줬던 날이 있었어요. A씨가 평소에 그리던 캐릭터처럼 저를 그리면서 캐릭터의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준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B.



B에게 직업인으로서 바리스타 생활과 쓰는 행위를 하는 직업공간은 중요하다.

B의 어머니는 B의 가정생활과 교육환경을 제공한 주 양육자이다.

오하나는 B가 일하는 직장의 팀장이자 근로지원 조력자로, 4년째 B와 함께 일하고 있다.

(1) 자기소개

라떼하고, 얼음 넣고, 그 다음에 에이드하고 유자차,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짓는 것까지만. 이 정도. 너무 많으니까, 반만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또 안 마시는 손님들도 있지만, 잠이 안 오는 손님은, 제가 디카페인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스타 B라고 합니다.

42월 10일(금요일) 공간대어 일정

구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9:00 ~ 10: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0:00 ~ 11: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1:00 ~ 12: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2:00 ~ 13: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3:00 ~ 14: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4:00 ~ 15: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5:00 ~ 16: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6:00 ~ 17: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7:00 ~ 18: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18:00 ~ 19:00	회의실 1	교실 2,3,4	교실 5	강당 1	강당 2	세미나실

The table is a detailed activity log for a space rental on April 10th. It is filled with handwritten notes in various colors (blue, red, green) and includes circled numbers (1, 2, 3, 4, 5, 6) and other markings. The notes describe activities in different rooms across multiple floors, such as meetings, classes, and seminars. The time slots range from 9:00 AM to 7:00 PM.

B의 쓰는 행위 결과물1

(2) 당사자 인터뷰

B는 2017년부터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 들다방*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B와 바리스타로서의 생활, 쓰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적기업 들다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카페 겸 급식소. 그 외 장애 관련 북 콘서트,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

백구 B씨는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B 5년 정도. 내년까지 하면 6년인가.

백구 들다방이 첫 직장이고,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신 경험은 없으세요?

B 다른 카페에서 일한 적 없어요.

백구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리스타가 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으셨나요?

B 대학 다녔어요. 직업 교육은 안 받았어요.

백구 대학에서는 전공이 뭐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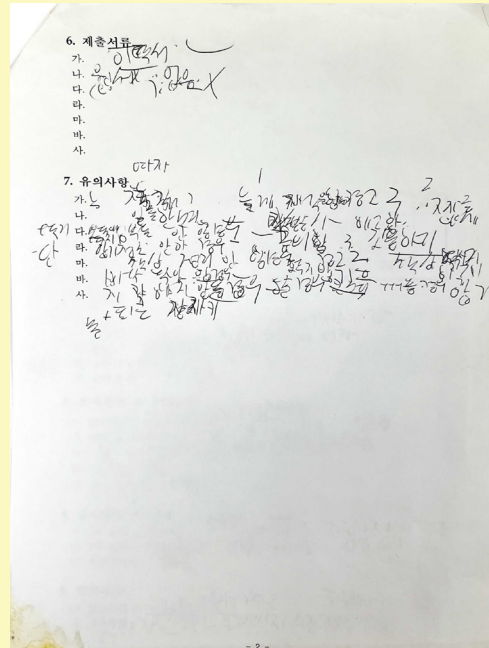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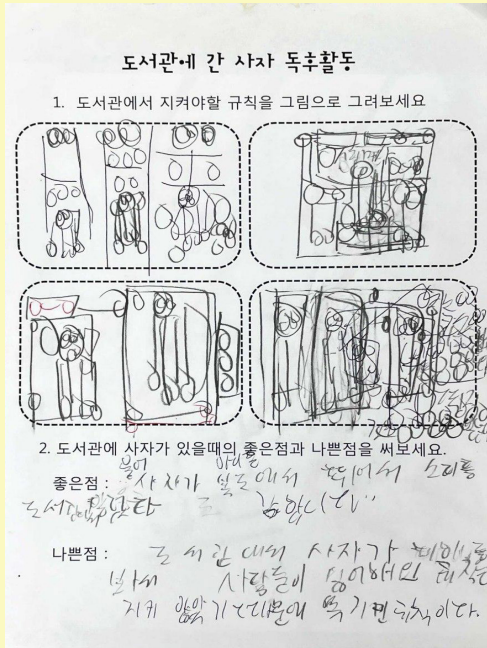
B 사무자동화, 아니 사무자동화학과인데요. 컴퓨터를, 어려워서, 머리 아파서.

백구 컴퓨터 쪽 전공을 하셨군요. 그러다가 바리스타로 일을 하시게 된 거군요. B씨가 평소 근무하시면서 글자를 쓰거나 그림 표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글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표현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B 다시 쓸게요. 다시 다시 다시.

백구 여기 보면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 B 영수증이요. 이거 거의 자료 영수증이, 이게 없어요. 자료 영수증이 없어. 천천히, 좀 천천히 적을게요.
- 백구 천천히 적으셔도 돼요. 천천히 쓰면 어떻게 써요? 여기 글자들은 빨리 쓰신 거예요?
- B 뭘 잘못 적을 때가 많아요. 글을 쓸 시간이 없어요.
- 백구 글을 쓰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커피 주문 들어오시기 전에 톱툰이 적으시나요?
- B 손님이 중요하니까, 손님이 싫어하시겠죠. 왜 음료 주문 음료 안 만들고.
- 백구 여기 적은 글자들이 뭘까요? 궁금해서요. 뭘 적으신 걸까요?
- B 이거 궁서체예요.
- 백구 천천히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음료? 음료였구나.
- B 네. 짧게 하겠습니다.
- 백구 음료, 손님, 만들기. B 씨가 해야 될 일을 적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러면 이런 동그라미 같은 표현들은 뭐예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 B 손님, 사람요. 다시 그릴게요. 이러면 그림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손님이고. 이건 휠체어 타시는 분이고요. 그 옆에는 활동 보조인 선생님인가.
- 백구 맞아요. 활동 보조인 선생님이 계시죠. 이것은 손님을 그리신 건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그리신 거구나, 맞나요?
- B 재밌어요. 잠깐만.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 백구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여기 '영수증'이라는 글자도 있고 '손님'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은 혹시 어디서 그리신 거예요?



B의 쓰는 행위 결과물 2,3

B 이거요. 이거요. 도서관 실습 시간에 그린 거예요. 도서관 이론 학과 수업에서. 그런데 이것도 좋은 거고, 나쁜 점은 손님들이 싫어하지. 손님들이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손님들이 싫어한 것 같고. 사자를 보면 무시하고, 무시하고.

백구 무시한다고?

B 사자를 무시하고 사자, 동물, 동물 학대 금지 금지 금지.

백구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도서관, 사자의 독서 활동이었구나. 이런 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B씨의 상상인가요?

B 상상해서.

백구 '만약에 도서관에 사자가 갔다면'에 대한 상상을 B 씨가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자였어요?

B 사자도 기본 나쁘니까, 그러면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 백구 사자도, 사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B 씨가 상상하신 거군요.
- B 네.
- 백구 이것은 오늘 쓰신 거잖아요. 이게 뭘 쓰신 건지 조금 저한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B 다시 적을게요.
- 백구 B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메모를 자주 하세요? 집에서도 많이 하시나요?
- B 집에서도 글 연습해요.
- 백구 지금 바리스타 일을 오전에 하시고, 혹시 다른 공부나 다른 어떤 일도 하세요?
- B 아니 다른 거 해요. 집에서 운동하고, 유튜브로 공부.
- 백구 유튜브로 뭐 공부하세요?
- B 중국어, 중국.
- 백구 중국어 공부는 재밌으세요?
- B 네, 중국어 발음이 되게 신기하죠. 못 따라하겠던데요. 중국어는 반말이었어요. 존댓말이 없어,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는데. 간체가 틀리더라고요. 뭐 뭐 성조.
- 백구 성조, 한문이 너무 많아서 어렵지 않아요?
- B 진짜 천천히 말하라니까. 교수님이요, 교수님.
- 백구 너무 빨라서 쫓아가기 힘든데 왜 매번 중국어 수업을 들어요?
- B 그래도 재밌는 거만 한 번만 하루에 한 번 정도 30분. 한마디만 해야겠다.

(3) 조력자 인터뷰: 직업인의 조력

1) B의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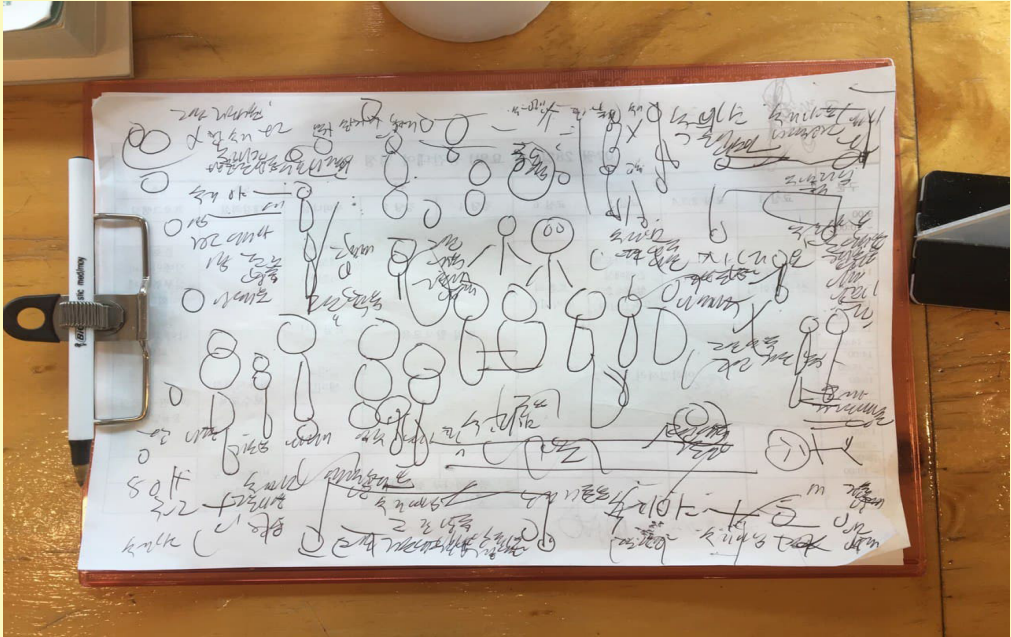
오하나는 사회적기업 들다방 근로지원 조력자이자 카페 팀장으로, 2019년부터 같은 직장에서 B와 일하고 있다.

백구 B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B씨의 표현이 카페 풍경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는 손님들이고, '영수증'이란 단어도 적혀 있고. '컵 닦기' 이런 것부터 자신이 바리스타로서 해야 되는 어떤 일들도 적혀져 있는 것 같았어요.

오 하나 어디에 문자로 남기지 않으면 자신이 다 기억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들다방 바리스타 분들의 할 일을 적어놔요. 자신의 할 일을 잊어버렸을 때 충격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했는데 못 했다, 까먹었다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는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일을 적어놓고 대비할 수 있게 하죠.

백구 그리고 B씨가 반복적으로 "천천히", "짧게 이야기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오 하나 네, 의외였어요. 준비된 말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으세요. 손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정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도 손님의 등에 대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말은 꼭 하려고 애쓰세요. 손님한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처음에는 손님을 싫어하거나 손님에게 통명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이 힘드니까 손님이 등을 돌렸을 때 말을 한다든지, 일에 있어서 잘하고 싶어하시고, 잘하세요. 들다방 바리스타분들은 글자를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분들을 뽑은 건 아닌데요. 다 한글을 읽으시고 적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걸 편안해 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오늘은 어딜 갔고, 무엇을 봤다는 걸 정서적인 메시지로 소통하는 걸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웹 서핑을 하세요, 일에 지장이 가지 않게.



B의 쓰는 행위 결과물 4

그런데 B씨는 특이하게 핸드폰은 거의 안 하시고 성가셔 하세요. 카카오톡에서의 대화도 힘들어하셔서 단톡방을 다 나오세요.

백구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는 걸 힘들어 하시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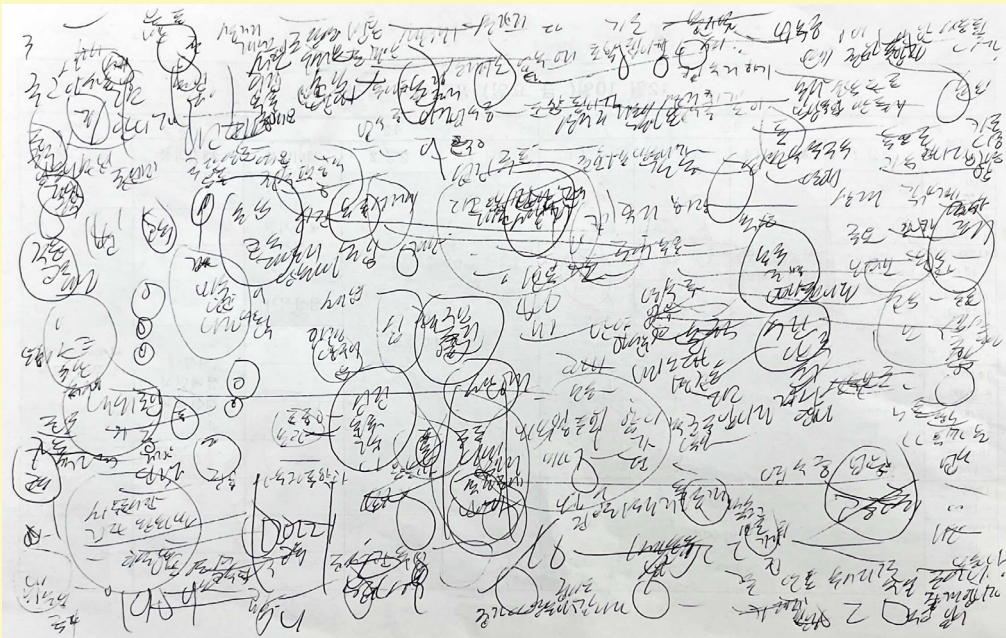
오 메시지들이 갑자기 훅 치고 오잖아요. 그래서 B씨 또래의 다른 바리스타분들에 비해 핸드폰을 거의 안 하시고, 휴대폰으로 시간 확인만 하세요. 디지털에서의 문자 표현은 거의 안 하시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메모를 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자주 봤어요.

백구 근로지원인 선생님과 유대감은 어떤가요?

오 '스몰토크'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화제는 아니지만 그냥 서로 나누는 말이 전혀 없으세요. 각뚫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B씨는 메모를 하면서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손님이 올 때 바리스타들이 등을 지고 있는 식의 작업 환경이었어요. 그런 배치에서는 손님이 오면 바리스타가 뒤를 돌아봐야 했죠. 지금은 옆으로 위치를 변경해 테이블 없이 의자만 있는 자리에서 손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어떤 바리스타에게는

괜찮은 자리지만, B씨에게는 앞에 테이블이 없어 글씨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 환경이 B씨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 일부러 테이블이 곁에 있는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언제부터 메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늘 메모하고 있었어요. 종이를 좋아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위생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서, 휴지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것도 휴지가 대하기 편하니까, 종이를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 편안해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책도 웬만하면 다 한 번씩 보려고 하세요.



B의 쓰는 행위 결과물 5

2) B의 양육자

B 어머니와 B의 학년기와 성장과정에서의 쓰는 행위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B의 어머니 B는 생후 20개월부터 발달이 좀 늦었었어요. 그때부터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인지 교육도 받고 그랬어요. 주로 남편 직장 발령 때문에 교육이 중간에 끊기고, 학습 교육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초,중,고등학교 가서는 특수학급에 있었고 특수교육도 시켰어요. B는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대학교는 일반대학은 아니고 발달장애인들만 입학 가능한 대학을 다녔어요.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이 학생이다 보니 인지 학습을 기본으로 하지만, 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체험하러 다니고 캠프 등 사회생활 위주의 활동을 했어요. 그곳을 3년 다녔어요. B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편이 아니고 보기보다 소극적이예요. 3년 동안 대학에서 추억이 많았나봐요. 지금도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 졸업하고 들다방에 취직하기 전 6개월 동안 복지관을 다녔어요. 복지관엔 또래들이 많았지만 B는 힘들어 했어요. 그러다 아는 분이 들다방에서 바리스타를 모집한다고 알려줘서 취업을 하게 되었죠.

백구 언제부터 들다방에서 일하셨나요?

B의 어머니 올해(2022년) 6월이면 5년, 그 정도 됐어요. 들다방 생길 때부터 근무했어요. 저는 여기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B를 옆에서 케어해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방어해주시고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니깐 B가 소외받지도 않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백구 바리스타 일이 끝난 후에 집에서 혼자 수업을 검색하시고 듣는 여가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B의 어머니 네, 맞아요. 한두 시간은 그렇게 놀아요. B는 시끄럽게 남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모여서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자조모임을 해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하고 선생님

도 한 번씩 초대해서 활동을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했는데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요.

백구 B씨가 들다방에서 표현 활동을 하시는데 집에서도 많이 하시나요?

B의 어머니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A4 용지에 그리더니 요즘은 덜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들다방에서는 좀 한가하니까 그리는 것 같아요. 남는 시간에 앉아서 글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뭘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림이 정확한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백구 B씨가 집에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시거나 이야기 하시나요?

B의 어머니 아니요. 학교생활 할 때도 B의 그림이 특별하거나 했다면 제가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형태를 그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구 그림을 많이 그리시던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B의 어머니 대학 다니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에서는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면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쓴 것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용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글 쓰는 공부도 했었죠. B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는 거의 손을 놓았어요. B도 사회생활이 먼저인 것 같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백구 한참 그리거나 쓰는 활동을 하실 때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분량을 하셨어요?

B의 어머니 본인이 생각날 때 한두 장하고는 던져놓고 했죠. 확 써놓고 옆에 붙여놓고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꽃아놨다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많이 버렸어요. 제가 관심이 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볼 수도 없고 해서 낙서한다고 생각했어요.

백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신이 바리스타이고 여기 들다방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직업의식이 높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표현 하시더라고요.

B의 어머니 무엇인가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들다방에 취업하면서 조력인 선생님들 덕분에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많이 터득한 거죠. 들다방에 취업 전까지 바리스타 취업준비를 한 것은 아니에요. 우연히 좋은 기회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 B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백구 B씨와 인터뷰 나뉘었을 때 하셨던 말 중에 '차별하면 안 돼' 이런 말도 하셨어요.

B의 어머니 들다방의 영향인 것 같아요. 장애인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장애인을 차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백구 B씨의 그림이나 표현을 봤을 때 이 공간(들다방)의 환경을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글자와 그림을 선형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B씨가 공간에 있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카페를 찾아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어요. 종이 공간을 B씨의 방식대로 재미있게 채우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B의 어머니 들다방을 오래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어쩌면 본인은 따분해 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백구 근로지원인 선생님에게 듣기로는 B씨가 책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새로운 책 보시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신다고 들었어요.

B의 어머니 관심은 많은데 습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씨를 차근 차근 못 읽고 넘겨버리거든요. 넘겨서 읽고 단어를 뒤집어서 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백구 뒤집어서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B의 어머니 가끔 글자를 거꾸로 읽더라고요. 어릴 때는 글자를 거꾸로 읽는 경우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헌데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훑어 넘겨버려요. 속독하는 애들이 책 전체를 쓱 보고 내용을 알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잠재력이 있나, 생각도 했었어요.

백구 전반적인 책 내용을 눈으로 훑어보는 방식으로 습득하신다는 거죠?

B의 어머니 B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싹 습득해서 어떤 부분의 내용을 애
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B
가 말하기도 해 저희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백구 기억력과 습득력이 좋으신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B의 어머니 네, 연결해야 그것이 자기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데 B는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백구 언어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B의 어머니 글쓰기가 잘 안 되니까 선생님하고 책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쓴
다든지 하는 활동을 했었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었죠.

백구 학습지 선생님이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교육인가요?

B의 어머니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했어요. 논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B를 잘 아는 선생님
이라 B에게 맞춰서 동화책을 갖고 와 같이 읽기, 쓰기를 했죠. 그리고 인지 학
습도 했었고 브레인 수업 같은 것도 했어요.

백구 그런 학습에서 B씨는 어떠셨어요? 즐거워하셨나요?

B의 어머니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면 B가 실증내고 안 한다
고 그랬어요. 논술 선생님들 말로는 '가끔 B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재성도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건 B의 기억력이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백구 B씨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유튜브로 혼자 중국어 수업도 찾아 듣는다고 하
셨어요. 언어에 대한 관심이 꽤 있으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B의 어머니 중국어는 누나의 영향이 좀 있어요. 누나가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에서 생
활하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누나가 중국어를 하니깐 어느 순간 B
도 중국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유튜브로 찾아 공부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본인
이 찾아서 보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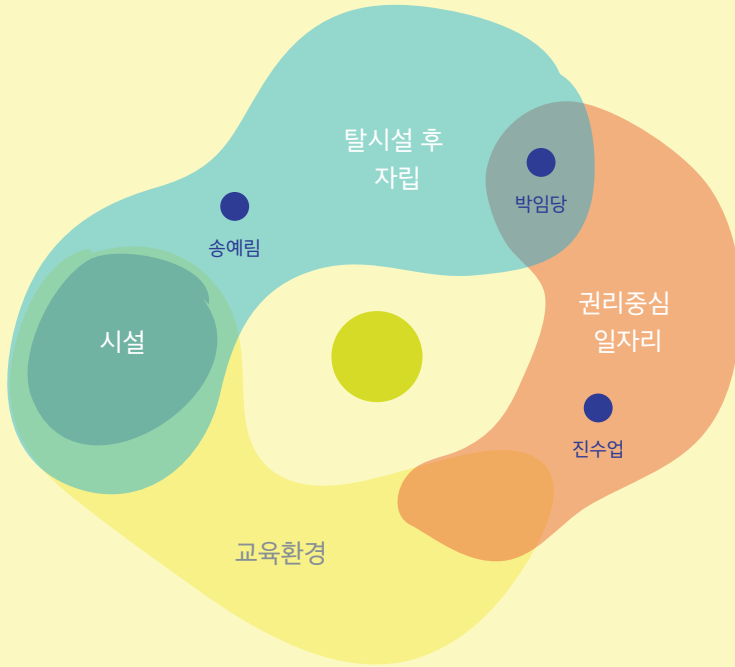
백구 B씨가 누나의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B의 어머니 누나의 잘하는 부분을 흉내내듯이 자기가 하는 척하거나 누나가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기억력이 좋아서 누나가 중국어를 한두 마디 가르쳐 주면 그걸 안 잊어버리고 사용해요. 여행 가서도 B가 배운 중국어를 사용하 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하고 말하는 것에 재미를 더 느끼고 그래요.

백구 B씨 스스로 필요한 것을 리서치도하시고, 영어나 중국어 자체를 관심 있어 하시고 들어보기도 하고 하시는데요.

B의 어머니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요.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는데 신문은 싹 훑어보고 넘 어가지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습득하는 것이 빨라요. B는 너 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B 야 그게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할 부 분이 참 많다……

2.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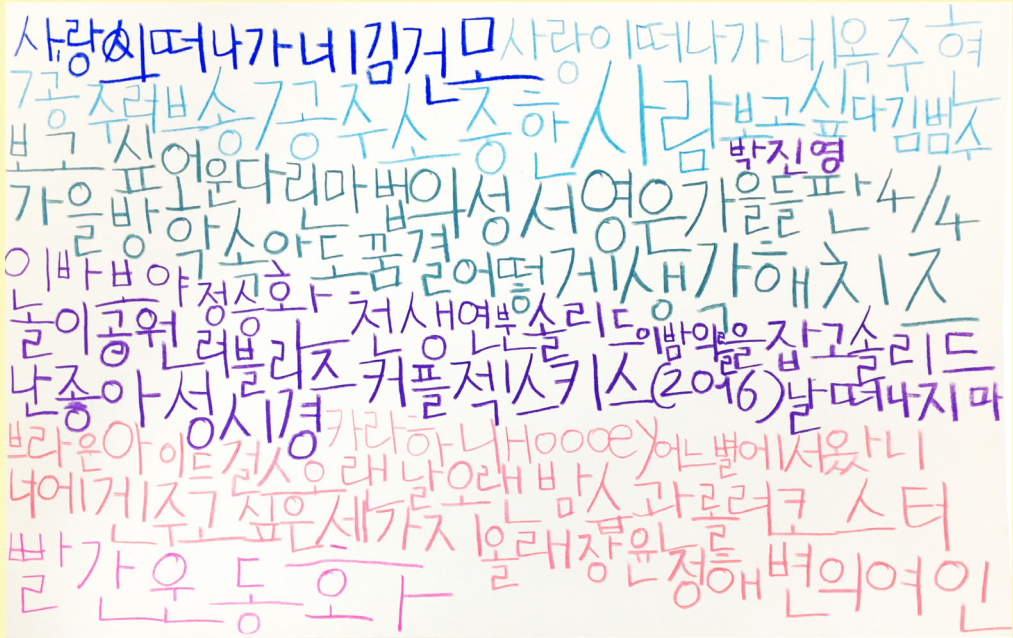


C는 장애인야학 내 수업에서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로 발전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 이 수업은 C가 자신만의 쓰는 행위 표현을 자유롭게 실천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이다.

박임당은 장애인 야학의 활동가로 C가 탈시설하기 이전인 2017년부터 장애인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다.

송예림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로 C가 탈시설한 이후 2019년부터 자립주택에서의 생활 지원을 도왔다.

(1) 자기소개



C의 쓰는 행위 결과물 1

(2) 당사자 인터뷰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당사자의 자기소개 및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했다.

(3) 조력자 인터뷰: 탈시설 이후 자립

1) 장애인야학 활동가

박임당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야학 활동가로, 그와 C의 시설에서의 생활, 탈시설 이후의 변화된 쓰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백구 C씨가 야학에 오신 게 몇 년도일까요?

박임당 2017년부터예요. C씨는 이전에 I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I 시설은 발달장애인만 있는 시설이고, 한 60명 정도가 거주하셨어요. 장애인 거주 시설은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역사회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들이예요. 그때 당시가 야학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지 3년 차 되던 해였어요. 발달장애인들이 매일 갈 곳이 있고 지역사회와 만나 관계 맺는 것을 같이 학습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C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야학으로 오게 되었죠.

백구 C씨 같은 경우 시설에 얼마 정도 있으셨나요?

박임당 10대 때 부터였어요. 시설에서 10년 이상 사셨던 것 같아요.

백구 C씨는 공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나요?

박임당 C씨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어요. 고등학교까지 I 시설 옆의 특수학교인 I 학교를 다녔어요. 야학에 오시는 I 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학교를 다니신 건 아닌데, 어떤 분은 전공과를 다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시더라고요. 전공과는 대학 과정이잖아요. 다른 분은 같은 시설에 있었는데도 초등학교만 다닌 분도 있어요.

백구 장애인 시설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부재한 상태였나요?

**박
임당** 사실 시설들은 전무하죠. 시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 대 다 지원이잖아요. 일상생활 지원도 제대로 되기 어려운 구조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여력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 송년회 같은 것을 하거나 누가 퇴소하면 퇴소잔치, 환갑이면 환갑잔치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자원 연계를 많이 해보려고 하죠.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종교 시설이 중요해요. 탈시설 이후에도 중요하고요. 주말에 갈 곳이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따뜻하게 관계 맺고 할 수 있는 기반이 종교 시설들이다보니 지속적으로 교회에 가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는 주변의 복지관을 알아봐서 참여하시거나, 시설 내부에서 언어 치료나 물리 치료 공간이 있어서 진행 하기도 해요. 그런데 늘 운영하거나 시설에 있는 모두가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분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백구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미술 시간이라든가, 문화예술프로그램 전무한 거죠?

**박
임당** 그렇죠.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시설 내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고, 장애인 재활이나 의료적 관점에서 예산 투입이 성립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몇 군데를 가보면 언어 치료실, 물리 치료실, 재활 치료실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소박한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어 있는 시설도 대규모로 시설이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어서 누가 쓰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정해진 회기나 이런 건 있을 테지만, 표현이라든지 관계 맺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전무한 상황이죠.

백구 C씨는 탈시설 하시고 자립주택 들어가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박
임당** C씨가 자립하신지는 3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백구 임당 선생님께서 진(ZINE) 수업* 초반을 담당하셨잖아요.

**박
임당** 네. 꽤 오랜 기간 했죠.

***진(ZINE)수업**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매주 목요일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성인들과 진(zine)을 만드는 수업. 2016년부터 시작했다. 진은 개인이나 작은 그룹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획부터 집필, 편집, 인쇄, 유통의 전 과정을 스스로 하는 인쇄물을 말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각자의 속도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을 진으로 본다. 종이를 진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는 사람들도 있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백구 저는 C씨를 2019년부터 봐왔는데, C씨는 진 수업 초반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눈사람, 사람의 형태 같은 것을 그리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자립을 한 이후부터는 쓸 수 있는 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C씨가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 과정을 받았었는지 궁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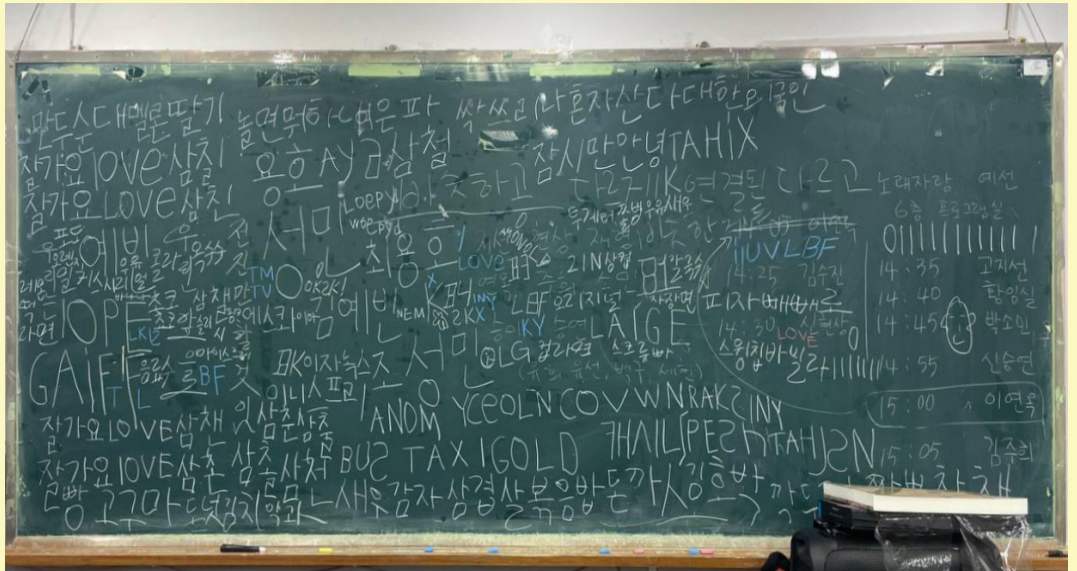
박임당 C씨는 자립 이전에도 설문지를 주면 다 읽고 대답을 쓰실 수 있는 정도로 문해가 되시던 분이었어요. 예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서 종이를 드렸더니, C씨가 보고 쓰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백구 그러면 진수업에서만 글을 쓰지 않으셨던 건가요?

박임당 그런 느낌이 있죠. 원래 문해가 되셨던 분인데, C씨는 비장애인이 쓰고 있는 글자나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편하지 않아서 마치 외국어를 대하듯이 하는 느낌, 알긴 알지만 힘이 든 느낌이 있었어요.

백구 그래서 자신의 표현 활동을 할 때는 글 쓰는 걸 전혀 하지 않는 것 일수도 있겠네요.

박임당 그런데 요즘에는 좋아하시는 곡의 제목, 이런 것을 엄청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노시는 표현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C의 쓰는 행위 결과물 2

백구 요즘에는 폭발적으로 '라네즈, 아이오페, 비비(BB크림)' 노래방과 관련된 글자를 쓰세요. 그리고 글자를 가지고 놓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삼촌, 사촌, 성촌, 샘촌'이라고 썼다가 모음과 자음을 바꿔치기 하면서 비슷한 글자를 계속 쓰시고. 장애 당사자의 변화를 서술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추측을 할 뿐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한글 공부를 매일 한다고 해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박임당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해서 책 읽기나 글쓰기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적으면서 가지고 놓고 배열하며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이 글자를 그리는 행위와 융합이 되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가는 것을 지원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C씨가 원래 글을 알았던 것과 지금 글자를 가지고 노는 것은 다른 변화라고 생각해요. 지원자 그룹에서 일 대 다수를 지원하면 당사자에 대한 관점이 교환되기가 어렵죠. 현대 야학에서는 다수 대 다수 지원이니까 당사자로부터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들을 소통하면서 더 지원해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지원 환경을 계속 바꿔보고, 안정화되면 또 변주를 주고요. 변화의 근거는 당사자의 변화를 캐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사자의 변화가 우리의 교육 내용이나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일 수업이 끝나면 회의를 해오고 있어요. 체계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학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곳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고 결정지을 수 없잖아요. 개별의 환경과 속도도 다르니까요.

백구 C씨가 야학에 처음 왔을 때와 자립 후에 바뀐 점이 있을까요?

**박
임당** 일단 소리 지르시는 것이 없어졌는데, 그 과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데요. 장애인 시설에 계실 때는 불편한 지점이 생겼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호소하는 행동이 있으셨어요. 소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C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고, C씨의 표현 방식이니까 견뎌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백구 제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박
임당** 누군가를 타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맞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하고, 같이 하는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은 소리치는 것에 적응하고 몇몇은 못 견디고 그만두기도 하고요. 강사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치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가서 더 시원하게 지르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C씨도 조절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지르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1차 지원 목표였기 때문에 C씨가 불편해하지 않는 방향의 지원을 고민했지요. 그렇게 하다가 탈시설을 한 후에는 소리지르는 게 거의 없어지셨죠.

2)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송예림은 C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립주택 코디네이터로 지원 활동했다. C의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에서 나타난 쓰는 행위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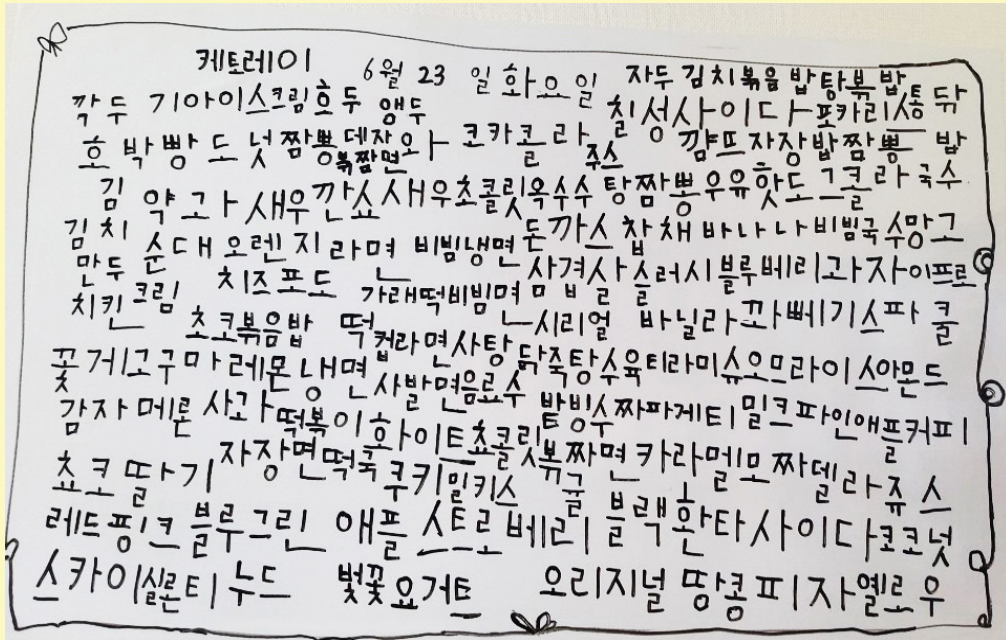
송예림 C님은 2006년 10대 때 I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셔서 쪽 거주하셨고, 2019년도에 자립주택으로 나오셨어요. 시설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I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리스타와 제과 제빵을 배웠다고 하시는데 자격증이 있으신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백구 C씨와는 어떻게 소통하세요? C씨가 질문 받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C씨와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싶는데 단편적인 질문 몇 가지밖에 나눌 수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예림 C님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중에 하나는 대화가 길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핵심 단어만 얘기하면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셔야 해요.' 그 정도 알려드리면 바로 하세요. 대화를 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때는 C님이 생각하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함께 얘기할 때 C님의 반응이 좋으세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만하자'는 반응과 느낌을 주시는데, 여러 명이서 C님을 바라보지 않고 같이 얘기할 때, 특히 주요 사항을 안내할 때는 좋더라고요.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들어야 될 것에는 '네'라고 반응하세요. 글을 읽을 줄 아시니까 핵심 단어마다 낱자와 정보를 알려드리면 아시더라고요.

백구 2019년도부터 C씨를 쪽 봐왔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원형 표현과 자신의 이름을 쓴다거나 눈사람 그리기 등 단순한 표현만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추상적인 도형 표현이라든지요. 아주 초기, 야학에 오셨을 때는 아파트를 많이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창문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이모라고 말하시고 C씨의 가족이라는 느낌보다 학습 받은 가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야학 선생님들께 들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초반부터 갑자기 글자 표현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어요. C씨의 학

년기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립 이후에 한글을 배울 계기가 생겼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야학 활동가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걸 알게 됐고, 야학에 오기 전부터도 문해능력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놀랐어요. 이러한 글쓰기 표현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궁금했어요.



C의 쓰는 행위 결과물 3

송
예림

자립주택에 입주했던 초반에도 글자를 쓰고는 하셨는데, 글로 표현하는 것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택입주 초반에는 적응하는 시기여서 (쓰기 표현이) 안 나오다가 이제는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서 더 발휘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문자 사용에 대한 변화가 보였던 부분은 2019년에 활동으로 했던 자신의 방 꾸미기 때였어요. 그때 게시판(화이트보드)을 구매해서 옷장 옆 벽에 붙였었거든요. C님은 대화가 길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지원자분이 '오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C님이 게시판에 적으면, 이후에 식사 메뉴가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를 적었는데 점차 빼곡하게 간식이나 음식 이름을 적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과정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노래 제목도 쓰고 그림도 나오고 영어를 섞어서 작성하시는 게 많아졌어요. 평소에도 달력에 주요 일정을 적는 걸 즐겨 하시는데요, 달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러 달력을 걸어두거나 낙서를 하세요. 최근에는 달력 이외에 공책이나 종이에 문자를 적어 벽에 전시해두세요.

백구 요즘에는 영어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파벳을 닮은 네모 표현은 무엇을 적으신 걸까요?

송예림 네모요? 이 네모를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본인만의 시그널인지 저도 궁금해요. C님이 일상 대화를 할 때 혼잣말로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어디선가 보거나 듣거나 한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고 몇 달 전에 '스톱'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알고보니 제빵을 하면서 강사님이 스톱이란 말을 하신 적이 있었나봐요. 그 이후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비상문'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상문. 일상에서 꽂히는 단어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백구 C씨가 평소 집에 계실 때는 어떤 일과를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송예림 메니큐어 바르고 노트북 검색하고 글씨 쓰고를 조금씩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메니큐어로 발톱을 칠하실 때 항상 tv는 틀어놓고 소리를 들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즐겨하시더라고요. 한가지 활동을 길게 하지는 않으시고 한 가지씩 순서를 정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항상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처음에 입주 지원하는 선생님께서 C님이 글씨 읽고 쓰는 모습을 보고서 학습적으로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서 일기 쓰기와 책 읽기를 했어요. 책 읽기는 사실 좋아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일기 쓰는 것은 본인의 일과라고 생각하고서 하세요. 초반에는 지원자분이 힌트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기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어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인적 사항, 외울 것을 주로 적으시더라고요.

C님은 개인의 공간이 보장돼야 되는 분이고 타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기보다는 선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입주자분이랑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적절하게 서로의 선을 지키세요.

백구 C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QR을 찍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봤는데 평소에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건 거의 못 봤어요.

송 예림 전화는 거의 안 하세요. 시설에서 있을 때도 휴대폰을 맨날 옷장 안에 뒀대요. 그만큼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 같아요. 입주하고 나서도 충전만 해놓으시고 거의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빼먹고 오곤 해서 휴대폰을 모바일 교통카드로 사용하게끔 한 다음부터는 '카드 찍어야 돼'라는 걸 알고 계셔서 챙기더라고요.

백구 검색은 노트북으로 하시고 휴대폰으로는 카카오톡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등 커뮤니티 활동 자체도 거의 안 하시는 거죠?

송 예림 네, 아직은 낯선 것 같아요. 전화벨이 울려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유튜브 시청도 휴대폰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화면을 휴대폰으로 보면 아무래도 작잖아요.

백구 IL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하 IL센터로 표기)에서는 C씨를 조금 더 직업적으로 조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일까요?

송 예림 C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복지관에서 같이 네트워크 활동으로 얘기하면서 자립주택에서 나가서 살게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놀랐어요.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면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주택처럼 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주택처럼 생긴 곳 아니면 아파트. 최근에는 아파트도 많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빵을 만들며 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3)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조력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줄임말인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는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종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최종증 장애인들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으로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를 실현한다.

진(zine) 수업은 노들장애인야학 내 수업에서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로 발전하였다. 이 예술활동 프로그램에서 현재 다섯 명의 조력자와 12명의 참여자가 매주 목요일 만난다. 조력자 김진수, 무밍, 백구, 유선, 유희, 와 C의 ‘쓰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 백구** 제가 C 씨를 처음 봤을 때는 늘 TV에 노래방 화면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다든지 춤을 추는 모습이었어요. 야학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표현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 유선** 처음부터 노래를 들으면서 수업을 했던 것을 아니었고 다른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었던 것 같아요. 초반엔 진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하나씩 벽에다가도 붙여주고 끝나고 발표도 했어요. 그런데 발표할 때 한 학생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표를 한다는 건 떨리기도 하고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하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를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C씨가 처음부터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 백구** C씨는 초반에 아파트를 그린다든지, 눈사람을 색깔별로 계속 그린다든지 동그라미 등의 추상적인 표현을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조형적으로 넣는 표현을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야학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표현인지 궁금했어요.
- 유선** 아파트만 계속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웠던 것이 있었는지 아파트의 창문마다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물어보면 아빠, 엄마에서부터 고모, 이모, 누

나, 남동생, 여동생... 그게 다 가족인 거예요. 인공적인 가족을 배운 것처럼 얘기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가 있고 층층마다 사람이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분리가 되면서 한 명 한 명이 눈사람처럼 되었어요. 또 어느 순간 집, 아파트의 표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I 장애인 시설 선생님들께 평소에 이런 것을 많이 그리는지 물어보면 I 장애인 시설 선생님 중 C씨의 표현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만들기를 잘한다, 공작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 잘 만든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어떤 표현을 주로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만 쓰고 글씨를 지금처럼 많이 쓰지 않았어요.

백구 C씨가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체적인 단어들을 쓰고 쌓는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글자를 가지고 놓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아요. '삼촌 삼촌 삼촌' 이렇게 글자를 변형해서 쓴다든지요. 놀이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유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유튜브를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본 것을 쓴 것 같아요. 처음에 노래 가사를 쓰다가 탈시설 이후에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다른 것이 나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외국어 대하듯 스펠링을 연습하듯이 본 것을 계속 따라서 해요. 외국어 배울 때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해요.

김진수 C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갇혀 있는 삶을 살다가 오픈된 공간에서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노래를 하는 경험들로 터지듯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자도 그림처럼 크기도 막 제각각이고 위치도 제각각인 글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만약에 C 씨에게 선이나 칸이 있는 노트 같은 것을 드리면 그 칸에 맞춰서 표현을 하실까, 아니면 그 칸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표현을 할까 궁금증도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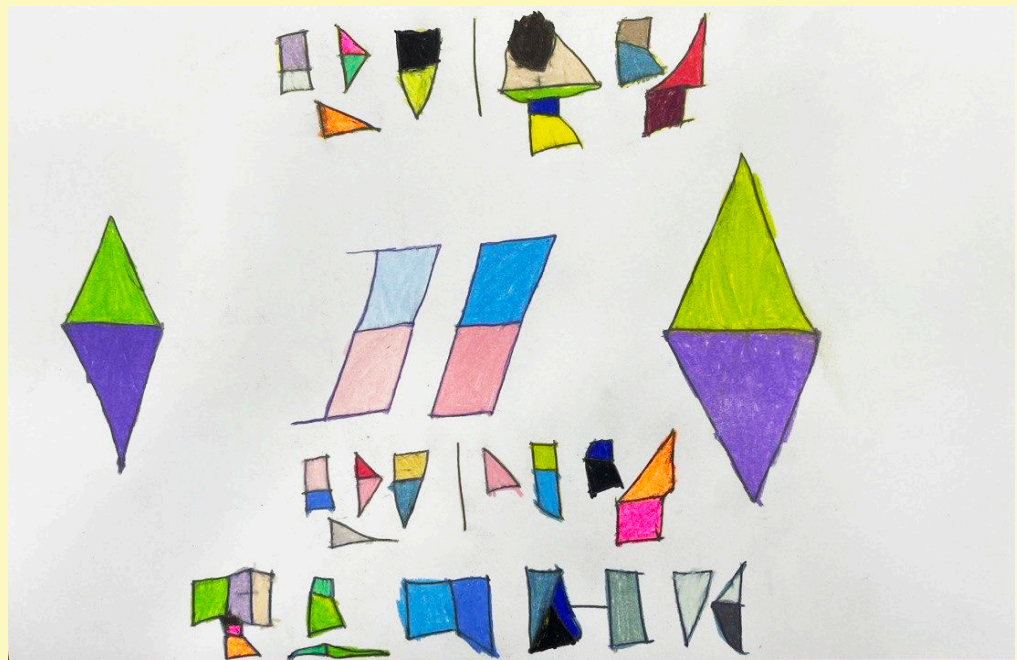
주택에서도 동거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을 것 같아요. C씨가 자기를 표현할 공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야학 환경은 C씨한테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할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C씨에게 제공되고 구성된 것은 교실 한 칸에 세팅된 노래방과 칠판인데, 그걸 더 넓히거나 아니면 더 해체하면 또 다른 표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희 눈사람을 반복적으로 그리시던 모습부터가 기억나고, 제 기억의 70~80%가 문자를 쓰는 모습이에요. C씨의 쓰기 행위를 제 시선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신에게 허락된 칠판이나 8절지, 4절지 종이 안에 꽉 채우는 듯이 문자 쓰기를 하시더라고요. 8절지를 받으면 8절지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 쓰시고, 4절지도 마찬가지로, 칠판도 보면 칠판을 넘어가서 쓰진 않으시잖아요. 딱 칠판 안에까지만 꽉 채워서 그래서 어떤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문자를 그 안에 채워나가는 식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신체를 움직이려면 관절들이나 근육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신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요소들처럼 문자는 C씨의 관심사라든가 오늘 했던 일이라든가 어제 있었던 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게 하는 요소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언젠가 쓰시는 모습을 주의깊게 옆에 서서 본 적이 있어요. 문자를 쓸 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형태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읊을 썼고 그 다음 모음을 쓰려고 하는데 지읊의 획 끝에 도화지의 공백이 남아 있으면 선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계속 연장을 하면서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느낌으로요. 한 번에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 여기 공백이 남았네, 하면서 선을 그어 도화지에 공백을 최대한 남기지 않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변주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C씨의 문자 쓰기를 보면 문자가 보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 문자로 인해 잘려나간 공백들도 보이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백구 C씨는 엄청 빠빠하게 쓰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케이(BK)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글자를 중간에 딱 쓰고 끝날 때도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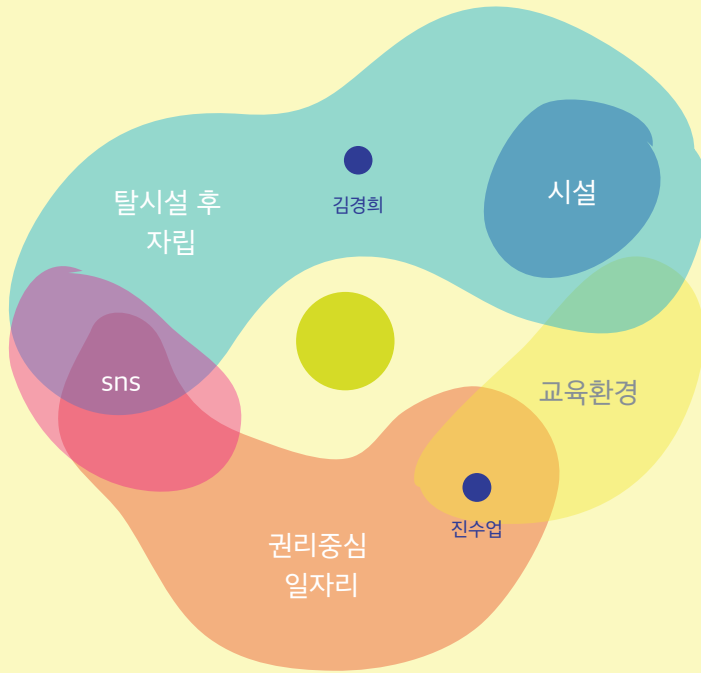
무밍 요즘은 진짜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제가 왔을 땐 노래 가사나 멜로디, 간주라는 글자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줌(zoom)으로 수업하고 다시 만났을 때 외국어 사용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어요. 칠판에는 이름이나 비케이 같은 것을 쓰세요. 제가 왔을 때는 그림은 안 그리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줌 수업할 때 토끼 그리고 이자눅스, 비비 크림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제목만 가운데에 쓰셨더라고요. 원래는 종이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여백이 많아지고 패턴 같은 느낌이 들어요. C씨의 글자는 무늬 같기도 해요. 분명히 글자로 인식하면서 쓰시는 건데 글자와 여백과의 균형을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BB B^ BV BW BA BE
 BK B5 B4 BF B3
 BN B4 B1 BF BN BM
 B2 B3 B6 B7 B8 B9



- 백구 예전의 표현 중에는 글자를 쓰시고 난 다음 글자와 글자점을 연결해서 그 안에 색을 칠해 도형으로 만들어버리시기도 했어요. 그 표현을 보고 글자를 그림 표현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가지고 노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C씨에게 글자를 쓰는 것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다른 요일 시간에도 하시나요?
- 김진수 다른 시간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노래 듣기 하는 것은 진 수업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진 수업 때 C씨가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 부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어요. 수업일지에서 그 내용이 전달되면서 다른 수업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 유선 외국어를 배우듯이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뜻은 몰라도 예뻐서 쓰기도 하잖아요. 알파벳도 그렇고 의미를 알면 조형적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유희 비장애인이 문자를 처음 배울 때 사각 큐브 안에 자음, 모음을 균형 있게 쓰잖아요. 글쓰기 습관들을 보면 배어 있잖아요. 그런데 C씨의 문자 쓰기에는 띄어쓰기도 없고 느낌표, 물음표들은 가끔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비장애인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문자 쓰기 활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C씨의 그림을 펼쳐놓고 사각 큐브를 친다고 하면 사각 큐브는 다 겹쳐 있고, 어떤 글자는 사각 큐브 안에 포함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공백이 생기는 대로 획이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도화지를 채우셔서요.

2. D.



진(zine)수업은 장애인야학에서 진을 만드는 수업으로, D가 자신만의 쓰는 행위 표현을 자유롭게 실천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장소이다.

김경희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로 D가 탈시설한 이후 자립주택에서의 생활 지원을 돕고 있다.

(1) 자기소개



D의 쓰는 행위 결과물 1

(2) 당사자 인터뷰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아하거나 자신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당사자의 자기소개 및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했다.

(3) 조력자 인터뷰: 탈시설 이후 자립

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김경희는 D가 자립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립주택 코디네이터로 지원 활동하고 있다. D의 자립주택에 방문하여 D의 동석 하에 김경희 코디네이터와 D의 탈시설 이후 자립생활에서 쓰는 행위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었다.

김 경희 D님은 2001년 30대 초반에 I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셨다가 S 장애인 시설로 이동하셨다가 다시 I 장애인 시설로 오신 경우더라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서울 자립생활 주택으로 자립을 하셨고, 부적응으로 9개월 만에 다시 I 장애인 시설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에 다시 자립해 현재까지 자립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학년기는 초등학교 중퇴로 돼 있으시고, 30대 초반에 I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신 이후에는 따로 교육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백구 D님은 자립 생활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야학 나오시는 것 말고 따로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시나요?

김 경희 저희는 자체 보조금으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집에서 홈 필라테스를 하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백구 주로 어떤 활동을 제일 좋아하세요?

김 경희 D님의 경우에는 만드는 활동을 좋아하세요 (D의 방문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D님이 만드신 거예요. 종이 접기, 색칠하기, 그리고 냅킨아트를 배우시기도 하셨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리고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고도난시에 망막에 손상이 있어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바로 눈 앞에 가져가서 구별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색깔 구별을 참 잘하세요.

백구 쓰는 행위 자체를 계속 즐기시는 걸까요?

김 경희 그렇죠. 활동지원 선생님께서 D님이 글씨를 쓰실 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본인이 즐겨 하는 행위 중 하나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구 배우신 것을 편지나 혹은 다른 용도로도 쓰시나요?

김 경희 본인의 노트에 적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전처럼 편지는 잘 적지 않으세요. 편지를 적으셨던 그 열정이 이제는 매일 노트에 글자를 쓰는 것으로 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편지를 주셨는데 ‘토끼’, ‘우산’, ‘소’를 적어주셨더라고요.

백구 예전에 D님은 야학의 학생들이나 선생님에게 편지를 많이 써주셨어요. 문구점에 가서 편지지나 필기도구를 사는 것이 D님의 큰 재미라고 들었어요.

김 경희 요즘에도 문구 쇼핑은 하세요. 연필이나 필통, 노트를 직접 사서 글자를 꾸준하게 적고 계세요. 예전에는 편지를 교장 선생님에게도 주시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주시고 늘 쪽지를 접어 전해주셨었는데, 지금은 편지 쓰기가 구몬학 습으로 대체되고 핸드폰이 생기면서 소통의 창구가 옮겨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구 D님께 스마트폰 생긴 게 언제일까요?

김 경희 2020년 12월 정도요. D님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공폰으로 연습한 후 사드렸는데, 요즘엔 핸드폰에 너무 빠져 계세요. 유튜브로 좋아하는 노래를 찾으시고, 얼마 전부터는 게임도 하시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취미생활이 늘어났어요.

백구 핸드폰으로 자신이 어디에 갔다 온 것, 누구와 함께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시며 자랑하세요.

김 경희 새로 나온 이모티콘을 구입하셔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도 좋아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나 전화를 많이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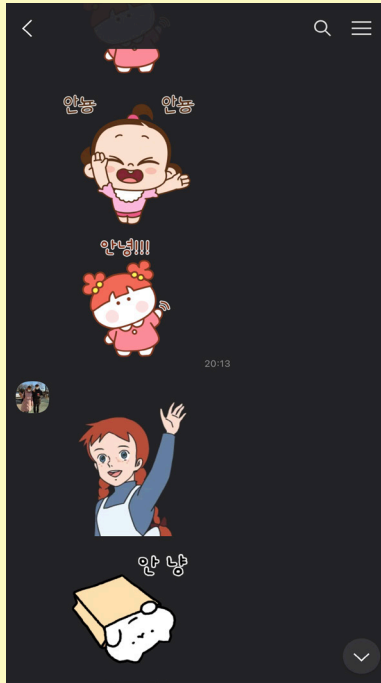
백구 저는 D님이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한다든지, 친해졌다고 생각하면 편지를 써주는 것이라든지,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활동지원사분들과의 관계에 선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 경희 편차가 심하세요. 예를 들어 자립주택에서는 지원사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도 야학에 가시면 갑자기 지원사에게 싸늘하게 대하신다거나, 감정적 편차가 심하세요. 낮가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필라테스 선생님이 자립주택으로 방문해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데, D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면 한 10분 정도는 서먹해요. 선생님이 서먹함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D님이 계속 피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웃고 장난치세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지원사들이 카카오톡 설치하는 것과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친구 추가에 아는 사람이 뜨면, 바로 이모티콘을 보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한두 번 알려드리면 자연스럽게 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저희에게 잘 안 보내세요. IL센터에서도 요새 D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실 정도예요. 전에는 문자 폭탄을 보내시더니, 요즘에는 사무실 식구들한테는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보내는 대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복지관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만난 분들을 친구 추가 하면서 이모티콘을 보내는 소통은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백구 카카오톡으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시는데,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하나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휴대폰 화면에 이모티콘을 가득 채워서 여러 개를 보내시더라고요.

김 경희 그래도 시의 적절하게 보내세요.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미지를 보내주세요. 큰 계절마다 이모티콘에 변화가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눈 오면, 눈이 내리는 장화 그림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라는 글자가 적힌 이모티콘을 보내세요. D님이 알고 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D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 1,2

백구 D님은 활동지원사 분들과 찍은 사진이랑 진 수업에서 그린 그림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로 자신의 공간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네요.

김경희 D님의 방 벽면에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D님이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폴더에 따로 저장해놓았다가 IL센터에 오셨을 때 D님이 보고 사진을 선택을 하세요. 그 사진을 프린트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진을 오려서 막 붙이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꾸미시죠. 본인의 그림을 오려서 스크랩도 해놓으세요.

2)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조력자

진(zine) 수업은 노들장애인야학 내 수업에서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로 발전하였다. 이 예술활동 프로그램에서 현재 다섯 명의 조력자와 12명의 참여자가 매주 목요일 만난다. 조력자 김진수, 무밍, 박임당, 백구, 유선, 유희, 와 C의 '쓰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유선 D님이 글자를 덩어리나 그림으로 인식해서 자신의 이름을 도장, 로고처럼 인식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이름을 써드리면 그것을 먹지처럼 복사하듯 쓰셨었어요.

백구 각자의 이름을 자신의 수첩에 적어달라고 하셔서 받아놓으면, 그것을 먹지처럼 옮겨 쓰시고, 그 외의 글자들은 유사 글씨로 쓰시잖아요. '김백구 리한한 리한수요리한' 이런 말들을 가득 채워서 편지를 늘 주셨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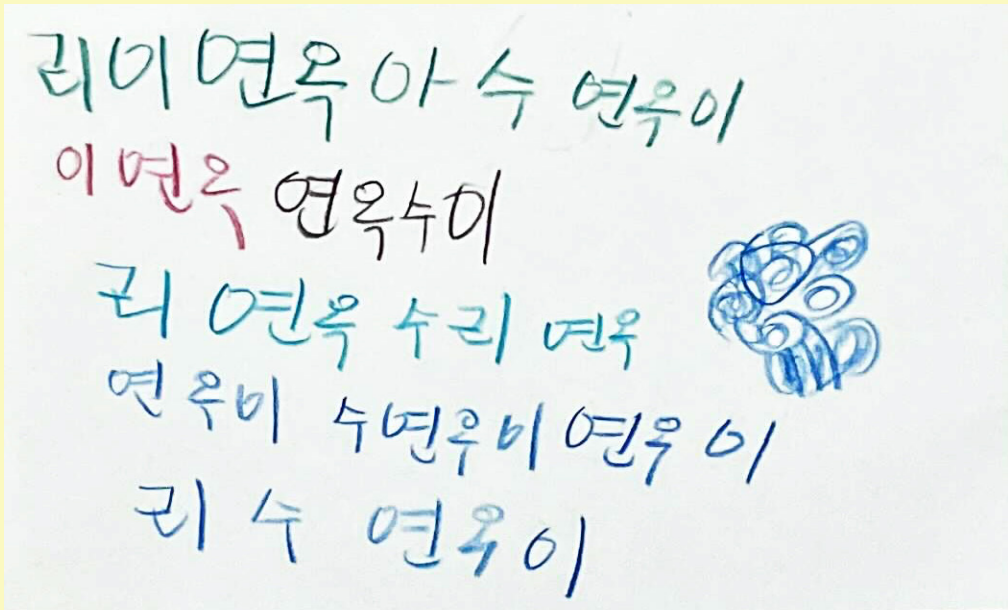
김진수 저는 '김진수 오리 이오리 오리 오리'.

박임당 저는 '인당 리오리 리오리 리안수'. 매번 제 이름을 틀리게 써 주셨었어요.

백구 유사 글씨를 쓰시는 학생들이 몇몇 있잖아요. '거거저저사강지시서재' 혹은 '시어시이사아시아사이어아수' 등을 종이 가득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선 글자를 조금 더 알고 있어서 문장은 쓸 수 없지만 자신이 엉터리 글자를 쓴다는 걸 아는 분도 계시지만, D님을 포함해서 유사 글씨를 쓰는 몇몇 학생 분은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여기에 썼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백구 예전에 D님이 다른 학생에게 편지를 주시는 것을 보고는 제가 편지를 받으신 학생에게 'D님이 뭐라고 쓰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잘 지내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먹어'라고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옆에서 D님은 자신이 그렇게 쓴 것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헌데 제가 편지를 보니 'OO 리한기한 기리한리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글자의 뜻으로만 생각이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글자를 쓴 시간과 손 글씨, 그리고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생각했어요.



D의 편지 1

박
임당

D님은 발화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말로 소통하려고 하기보다는 칠판에 가서 직접 쓰시거나 핸드폰을 펼쳐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시설에 계실 때부터 편지를 매번 써주셨는데, 처음에는 편지만 주시다가 어느 순간 조그마한 사탕이나 믹스커피랑 같이 주셨고, 나중에는 과자봉지나 커피음료와 함께 편지를 주셨어요. D님이 엄청 관계 지향적인 분이시잖아요. D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깊은 관계 맺음을 요구하는데, 나 한 사람하고만 깊은 관계맺음을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D님과 관계 맺음의 거리를 어떻게 뒤야 될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거리를 조절을 했을 때 D님이 서운해하셨어요.

- 무밍** 처음 D님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보거나 말을 걸 때면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셨을 때, 이제 D님에게 다가가도 괜찮은가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 백구** 요즘은 편지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내시잖아요. 자신과 사진을 찍자고 하시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 요구도 하시고, 자신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D님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나요?
- 김진수** 저는 D님처럼 이모티콘으로 보낼 때도 있고 제 이름을 보낼 때도 있어요.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D님은 폭탄처럼 이모티콘만 보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직접 쓴 편지를 전해주셨었는데, 간편한 방법을 찾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 유희** 저는 D님에게 한 번 편지를 받아봤는데 ‘기리기기기리한리’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을 쓴 건지 모르니까 어떤 마음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는 D님에게 문자가 오는데 똑같은 이모티콘이 계속 와요.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세요. 이모티콘이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뜻을 알고 계시고 인사말 몇 가지는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받았던 편지의 내용이, 그때는 읽을 수 없었지만, 이모티콘을 받게 되면서 이런 인사를 나한테 쓰셨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름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해 보기도 했었어요. D님은 평소에 저를 향해서 뭐라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알아듣는 말은 ‘추워, 더워, 졸려’ 정도예요. 그 외에 다양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거의 못 알아 듣죠. 이렇게 문자로 이모티콘을 보내시면 이모티콘엔 정확한 문자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대화들을 간편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D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저로서는 이모티콘으로 소통하는 것이 개운함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참고 문헌

곽민석, "레이몽 크노 Queneau-올리포 OuLiPo 그룹과 프랑스 현대 시학", 『인문과학』, 109호, 2017.

남종신·손예원·정인교, 『잠재문학실험실』, 작업실유령, 2013.

토머스 암스트롱, 『증상이 아니라 독특함입니다 : 부모와 교사를 위한 신경다양성 안내서』, 새로운봄, 2019.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2019.



쓰는 행위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쓰기-예술

책임 연구원 김지영 다이애나랩 구성원

연구원 이동경

연구에 도움 주신 분들 A, B, C, D,
A의 어머니, B의 어머니, 김경희, 김진수, 무밍, 박임당,
송예림, 오하나, 유선, 유희, 최선영.

표지 그림 변진호

사진 우에타 지로

교구 제작 이오목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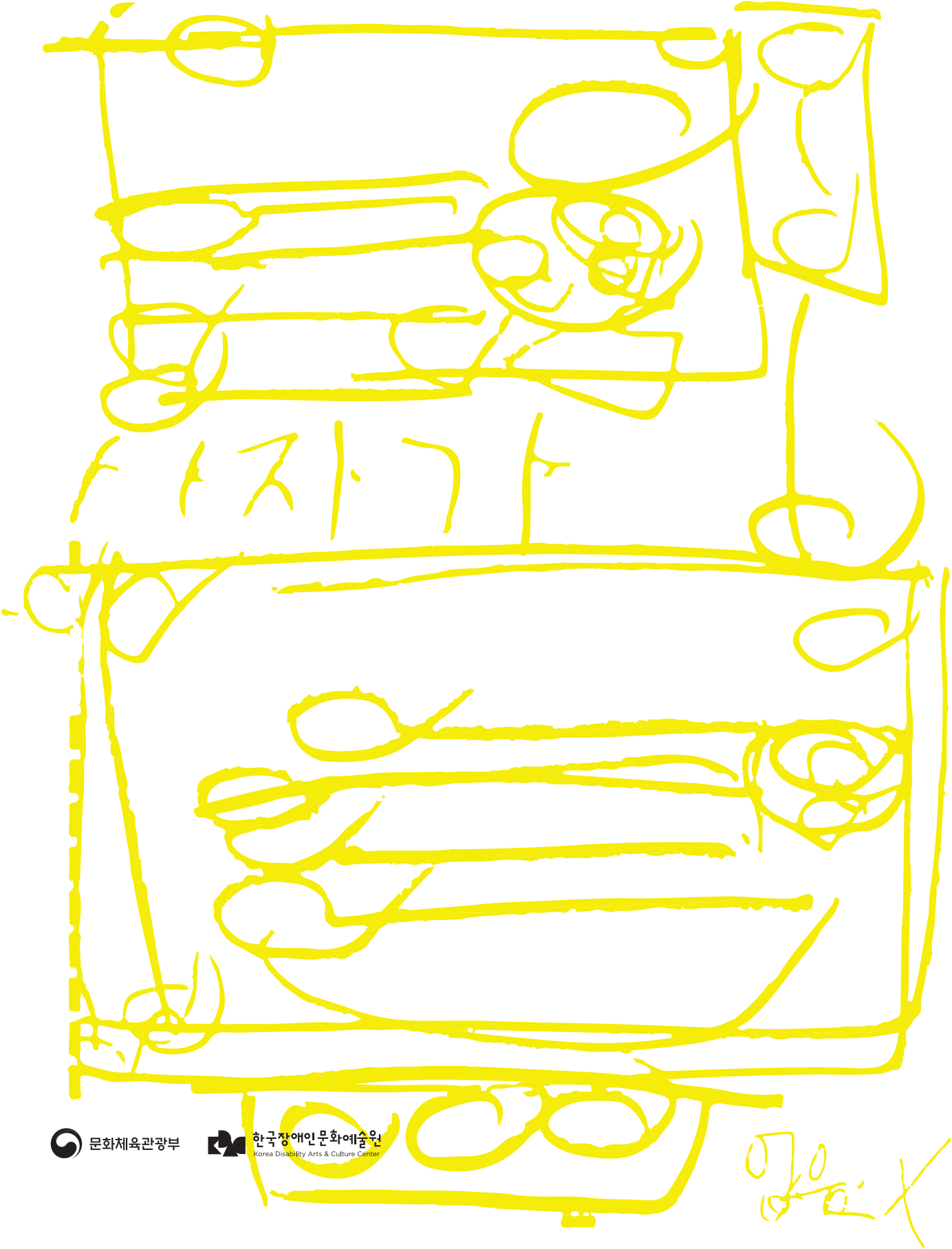
디자인 와르르맨손

수행 단체 다이애나랩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2022 김지영·이동경

이 책에 실린 글, 사진, 도판 및 글자블록과 프로그램 안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김지영, 이동경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자갓